

CDI세미나 2011-11

제2차 사회적 경제 연구회 워크숍

사회적경제의 해외사례

-캐나다 퀘벡을 중심으로

제2회 「사회적경제연구회」 워크숍 계획

1. 개요

- 일시: 2011년 4월 1일(금) 14시~16시 30분
- 장소 : 충남발전연구원 회의실(1층)

2. 목적

- 해외의 사례(캐나다 퀘백)와 충남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충남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단서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제발표 : 충남의 사회적 경제 현황(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중심으로)
 - 송두범(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캐나다 사회적 경제의 이해- 이은애(Seed's 혁신지원단장)
- 토론
 - 연구회 지정토론자 등 참석자 전원
- 기타논의
 - 제3회 연구회 주제 및 발표자 선정 공지

4. 행사일정

시간		소요 시간 (분)	내용	비고
부터	까지			
14:00	14:10	10	◆ 참석자 인사	
14:10	14:30	20	◆ 발제자 발표 (송두범-충남 현황)	
14:30	15:20	50	◆ 발제자 발표 (이은애-캐나다 퀘백)	
15:20	15:30	10	◆ 휴 식	
15:30	17:00	90	◆ 종합토론 및 정리	

5. 사회적경제연구회 외부 참석자

이 름	소속 및 전문분야	이메일	전화번호
박영송	충청남도의회		
이은애	씨즈		
김제선	풀뿌리사람들		
김성훈	민들레의료생협		
서정민	지역재단		
박상우	홍성풀무생협		
박 경	목원대학교 교수(경제학)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		
류동민	충남대 교수(경제학)		
이정만	공주대 교수(행정학)		
김혜원	교원대 교수(경제학)		
추 욱	충남도 사회적경제계장		
임호범	금강일보		
김민숙	씨즈		
명경화	씨즈		
김지철	충청남도 도의원		
박정현	대전광역시 시의원		

노병갑	충남지역자활센터 사무국장		
김종문	충청남도 도의원		
조성희	충남교육연구소		
최민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이원호	(주)푸드코리아		
홍은영	(주)푸드코리아		
박찬무	(주)즐거운밥상		
윤성웅	연기지역자활센터 센터장		
류철식	다인복지연구소		
이재국	얼굴있는먹거리		
남지현	얼굴있는먹거리		

6. 담당자 연락처

○ 김종수(사회적경제지원센터 책임연구원)

- 041-840-1211,

-jskim@cdi.re.kr

7. 이후 일정

<표> 연구회 워크숍 일정

구분	일정	논의 내용	전문가 초청 발표자	비고
사회적 경제의 이해	4월 1일	- 캐나다의 사회적 경제	이은애(씨즈 혁신사업단 장)	기초학습 및 연구네트워크 구축
	4월 19일	- 영국의 사회적 경제 - 이탈리아의 사회적 경제	문진수(소기업발전소) 최혁진(원주의료생협 전문이사)	〃
실태 분석	5월	- 사회적경제 생태계 분석 틀 - 충남의 사회적경제 실태(생 태계) 분석 내용과 방법 결 정	최혁진(원주의료생협 전문이사)	〃
	5월	- 실태분석 - 활성화 방안 틀 검토 (활성화 기본방향)	연구회 토론	〃

[목 차]

〈발표원고〉

-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시책 추진현황1
- 캐나다 퀘백의 연대협동조합22
- 캐나다 퀘백의 방문보고60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시책추진 현황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중심으로)

송 두 범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차 례

I . 머리말	1
II . 충남형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현황	2
III . 2011년 신청기업의 선정과 관련한 문제점	9
IV . 2011년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11
V . 향후 추진과제	12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시책추진 현황

I. 머리말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참여정부 시기 노동부,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일자리 T/F팀'을 구성하면서 부터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육성을위한특별법'(2007년)을 제정하고 '사회적기업 육성기본계획'(2008년)을 수립하여 2012년까지 1,000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각종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도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육성사업, 행정안전부의 지역공동체사업,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회사활성화사업, 지식경제부의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 등과 서울, 전북, 경북 등에서도 지역형 사회적 기업육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충청남도 역시 노동부 주관 사회적기업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양적으로 부족하고, 지역적으로도 편중되어 있으며, 사업 분야도 복지, 환경 등에 한정되어 있는 등 사회적 기업을 위한 생태계가 열악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민선5기 도지사 공약과 연계하여 2014년까지 '충남형 사회적기업 200개 육성'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형사회적기업은 충청남도 조례에 근거하여 충청도가 고용노동부의 7가지 인증조건 중 조직, 사회적 목적 실현, 정관 또는 규약 등 3가지(2010년)와 유급근로자 포함한 4가지(2011년)로 간소화하여 사회적 기업 참여를 희망하는 NGO, 비영리단체 등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매년 2회(1월, 7월) 공모하고 사회적기업 실무위원회의 사전검토와 육성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정한다. 지정된 기업은 1년간 신규채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 관리 및 전문인력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 개발비 등을 지원받게 되며, 그 성과에 따라 심사를 통해 1년간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2010년도에 처음으로 충남형 사회적 기업 17개를 인증하였고, 2011년 상반기 14개를 인증하여 총 31개의 충남형사회적기업(2011년 3월 현재)을 인증하였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마을기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자립형공동체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1개를 선정하였고, 2011년 '마을기업'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여 26개(2010년 선정된 2차년도 선정기업 4개 포함)를 선정하여 2011년 3월 현재 36개가 선정되었다.

이와 같이 충남형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선정 및 성공적 정착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충남발전연구원내에 설치 운영 중에 있다.

이하에서는 충청남도의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의 지정 현황 및 지원내용, 2011년 신청기업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과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충남형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현황

1. 충남형사회적기업 현황

1) 충남형사회적기업의 정의

충남지역에 소재한 사회적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업(단체)중 노동부의 7가지 인증조건에는 못 미치더라도 사회적 목적의 구체적 실현 및 수익성 창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높아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지정한 기업(단체)으로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기업(단체)을 의미한다.

2) 고용부 인증사회적기업과 비교

2011년을 기준으로 고용부 인증사회적기업과 충남형사회적기업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인증요건은 고용부 7개, 충남형 4개이며, 지원내용은 고용부와 충남형 모두 지원항목은 동일하나 지원금액, 지원인력의 수, 지원기간 등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1> 인증요건 및 지원내용 비교

구 분	고용부인증사회적기업	충남형사회적기업
인증요건	독립된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 실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정관·규약,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 (7개)	독립된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 실현, 정관·규약 (4개)
지원내용	경영지원, 재정지원, 사업개발비지원, 세제지원, 시설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보노 지원,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및 교육사업	좌동

<표 2> 지원의 세부내용 비교

구 분		고용부인증사회적기업	충남형사회적기업
인건비	일반직원	최저인건비(30명까지)	최저인건비(10명까지)
	전문인력	월150만원(3명 이내) : 3년간	월150만원(1명) : 2년간
시설비용자		-	기업당 최고 50백만원이내
사회보험료		4대보험료 일부지원	4대보험료
경영컨설팅		3년간 총2-3천만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개발비		기술개발, R&D,홍보 및 마케팅 등 기업당 7천만원	기업당 최고 30백만원이내 (추후공모)
세제지원		법인세 소득세 4년간 50%감면	
지원기간		최대3년간	1년(최장2년까지)

<참고> 현행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비교(고용노동부-충남도)

구 분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충남형 사회적기업	비고(하반기 검토방향)
공 모 방 법		○지정, 인건비 지원사업별도 공모	○지정, 인건비 지원사업일괄 공모	○ 고용부 지침 적용 검토
지 정 요 건		1)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1)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좌 동
		2) 사회적목적 실현 ○일자리제공형 : 취약계층 30% 이상 ○사회서비스형 : 수혜 취약계층 30%이상 ○혼합형 :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 각각 20%이상	2) 사회적목적 실현 ○일자리제공형 : 취약계층 20% 이상 ○사회서비스형 : 수혜 취약계층 20%이상 ○혼합형 :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 각각 20%이상	2) 사회적목적 실현 ○일자리제공형 : 취약계층 20% 이상 ○사회서비스형 : 수혜 취약계층 20%이상 ○혼합형 :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 각각 20%이상
		3) 유급근로자 고용 ○1인 이상 근로자 고용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3) 유급근로자 고용 ○1인 이상 근로자 고용 ○미 적용	좌 동 (현행 요건 유지) ※ 공모시 재검토
		4) 이익재분배 ○상법상 회사의 경우, 배분 가능한 이익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4) 정관·규약 ○상법상 회사의 경우, 배분 가능한 이익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좌 동 (현행 요건 유지) ※ 공모시 재검토
인 건 비 지원	일반	○최소 5인, 최대 30인 -4대보험 가입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 50% 이상	○최대 10명 이내	○ 고용부 지침 적용 여부 검토
	전문	○사회적기업만 해당 ※기업당 3명, 3년간	○기업당 1명, 2년간 ※10명당 1명	○ 지원여부 재검토
지 원 내 용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8.5% * '11년 시간급 4,320원 일급 34,560원(8시간 기준)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8.5% * '11년 시간급 4,320원 일급 34,560원(8시간 기준)	좌 동
지 원 준		○1년차 100%, 2년차 90% -최대 2년(매 1년 단위로 재심사)	○1년차 100%, 2년차 50% -최대 2년(매 1년 단위로 재심사)	○ 고용부 지침 적용 여부 재검토
지 원 기 간		○약정서상 명기된 사업개시 일 부터 12개월	○약정서상 명기된 사업개시 일 부터 12개월	좌 동

<표 3> 2010년과 2011년의 비교

구 분	2010년	2011년
지정규모	17개 기업	50개 기업(1월, 7월)
지정요건	조직형태, 사회적목적실현, 정관 및 규약	조직형태, 사회적목적실현, 유급근로자 고용 , 정관 및 규약
인건비지원 기준	630천원(최저임금 70%)	976천원 (최저임금 100%)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사업주 부담분
평가방법개선	1차 서류심사 후 현지확인 위주 심사 (3개권역 3개반 15명)	① 1차 서류심사 통과 기업의 사업설명으로 심사위원 동시 심사 ② 서류심사인원(10명내외) ③ 현지 확인은 서류심사 보완 수단 으로 활용 ※ 평가자에 의한 심사기준 통일로 평가 의 객관성 확보
전문인력	신청기업에 대하여 지원	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타당성을 사업 계획서에 첨부토록 하여 필요성 여부 사전 검증
지역제한개선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충남소재이어야 함	대표자의 사업내용, 사업수행지역 및 범위, 사업수행 책임자, 회계관리 방법, 책임의 한계 등 확인서 첨부 시 예외적으로 인정 ※ 노인복지관 등 실질적 운영주체가 지역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법인 소재지는 충남 외 지역으로 소외됨
중간지원기관 운영	지원기관 운영계획 수립	컨설팅 및 발굴 활동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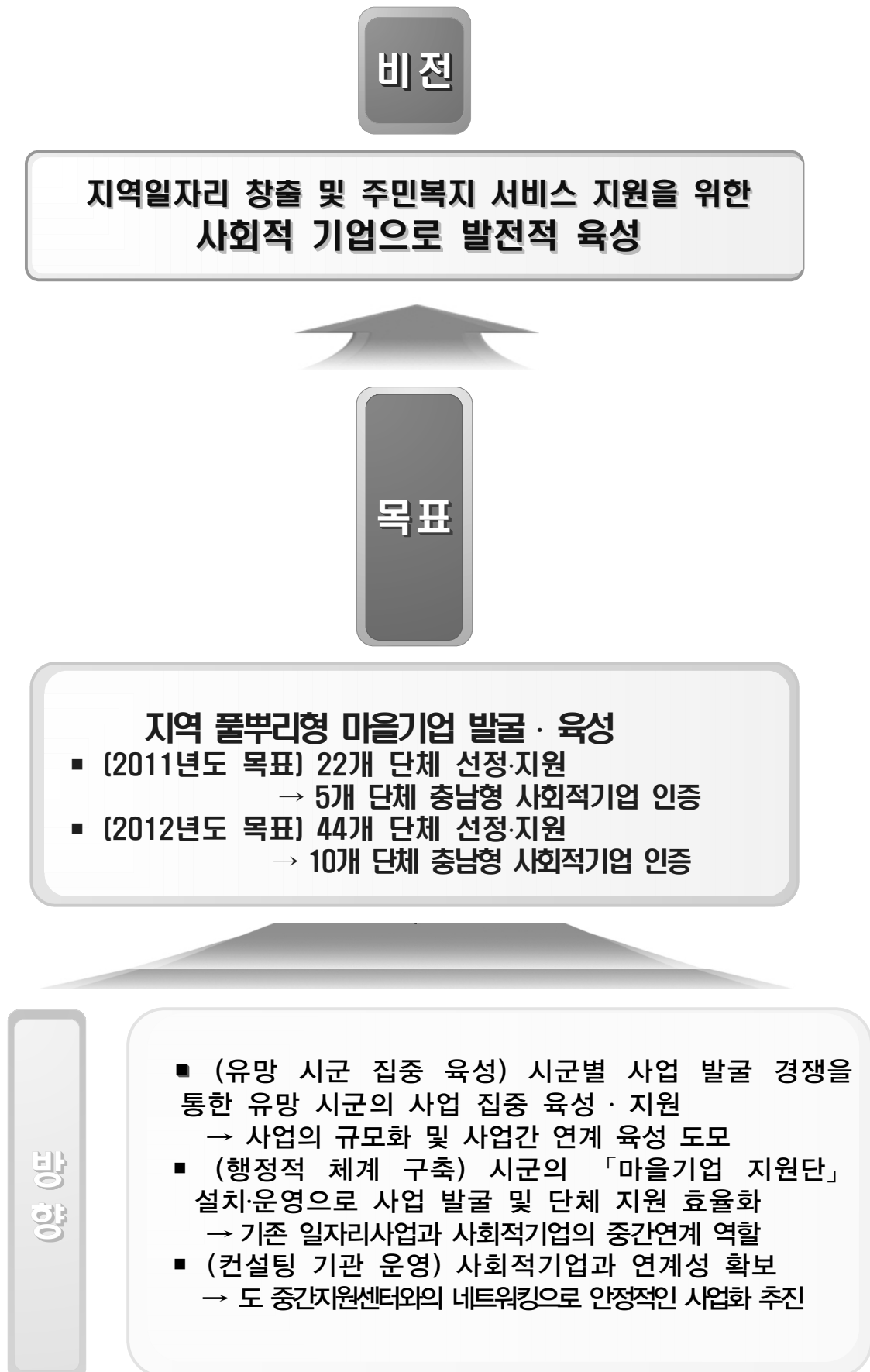
당해 마을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1차년도 약정 만료 전에 2차년도 사업을 재심사하여 선정한다.

사업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되, 1차년도 100%(50백만원), 2차년도 60%(30백만원)를 지원하며, 단체 당 8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선정 이후에는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사업역량을 제고한다.

<표 4> 자립형공동체사업과 마을기업의 차이점

구분	'10년 시범도입	'11년 본격추진
사업명칭	·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 마을기업
사업기간	· 6개월('10.9~'11.2)	· 2년간(1+1) : 1년 사업추진 후 평가결과에 따라 1년 추가
지원금액	· 7,600만원	· 8,000만원(2년간) ▶ 1차년도 5천만원, 2차년도 3천만원
육성목표	· 18개	· 22개 ▶ 2010년도 선정 사업(11개) 재심사 후 2차년도(최대 3천만원) 지원 ▶ 2011년도 신규 사업 선정 후 1차년도(최대 5천만원) 지원
단체선정	· 시군 : 공모 및 1차 선정 · 도 : 2차 선정 · 행안부 : 최종선정	· 시군 : 공모 및 1차 선정 · 도 : 최종선정 · 행안부 : 부적격단체 선정 취소
전문교육	· 전문교육 실시 : 4회, 240명	· 전문교육 실시 : 4회, 240명 · 4개 권역별 사업설명회 개최 · 민간 전문교육기관 지정·육성
홍보강화	-	· 기획홍보 실시(중앙일보 등) · 행안부, 국회와 공동으로 국제 콘퍼런스 및 지역별 순회 토론회 개최
지원조직	-	· 튜터(기존 마을기업, 지자체, 컨설팅기관)를 통한 1:1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지역공동체 거버넌스 구축 (시군-읍면동-농업기술센터 연계)
제도적기반	-	· 우수 마을기업 선정·관리 · 마을기업 육성법(가칭) 마련

3) 마을기업 비전 및 방향



3.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정 현황

2011년 현재 충청남도의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충남형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수는 90개 이다. 이중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 16개, 예비사업적 기업 6개, 충남형사회적기업 31개(2010년 17개, 2011년 14개), 마을기업은 37개(2010년 11개, 2011년 26개¹⁾)이다.

2011년 하반기에 충남형마을기업 30개 지정이 예정되어 있고, 조만간 농어촌공동체회사 2개 지정이 예정되어 올해 안으로 충남의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수는 총 110개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5>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현황

구 분	계	2010년 이전	2011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16	16	-
예비사회적기업	6	6	-
충남형사회적기업	31	17(2010년)	14
마을기업	37	11(2010년)	26
합계	90	50	40

Ⅲ. 2011년 신청기업의 선정과 관련한 문제점

1. 충남형사회적기업

- 2011년 충남형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한 41개 기업가운데 4가지의 지정요건(조직형태, 목적실행, 정관·규약, 유급인력)을 구비한 기업은 9개에 불과
 - 조직형태와 관련하여 모조직이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단으로 신청하였으나, 모법인과의 독립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목적실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목적실행과 관련한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확인 불가능한 경우, 취약계층 증빙서류 미제출, 사업경험 및 영업실적 부재

1) 2010년에 선정된 기업중 2차년도 사업으로 선정된 기업수는 4개 포함

- 정관·규약과 관련해서는 상법인인 경우 이익의 2/3이상 사회적목적 사용규정 미명시, 정관 및 운영위원회 회의록 미공증,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미확인, 청산규정 미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한다는 모법인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미제출 또는 미공증 등
- 유급인력과 관련하여 유급근로자 미확보, 유급근로자가 대표 및 부인으로 구성된 경우, 유급근로자의 명부 및 임금지급 여부 미기재 등
- 심사항목별 문제점
 - 조직관리 능력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마인드 및 이해의 부족, 사업장 기반 구축 및 생산경험의 부족,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는 충분하지만 경영능력의 부족 등의 문제점
 - 사회적목적실현과 관련하여 대부분 장애인과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에 한정되어 있고, 사회적목적 달성을 위한 노력의 부족, 취약계층의 고용창출은 사회적기업 지정과 연계하여 추진하려는 기업이 대부분임
 - 사업성과 관련하여 신청기업 대부분은 사업규모의 영세성, 전문적 경영능력의 부족, 사업경험의 부족, 지역기업과의 연계부족, 지속적 수익창출 노력의 부족 등의 문제점을 보유

2. 마을기업

- 공동체형성이 불분명하거나 미약, 모호한 추진주체,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부족, 공동체규약 미제정 등
- 사업내용이 아이디어 차원에 머무르거나, 경험이 부족으로 지속가능한 수익창출의 어려움
- 사업추진계획서상 사업내용이 불분명하고 계획서 작성 기술부족, 인건비위주의 사업비 신청
- 보조금의 사용용도 등 세부집행계획 및 자부담계획의 구체성이 미흡하여 지원에 의존하는 사업추진 경향을 보임
-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사업의 지속성 보다 시설설치, 기자재구입 등의 용도로 보조금을 요청하고 있어, 사업변경 또는 중단 시 활용 어려움
- 개인 또는 소수의 주민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업성과의 지역 환원 미흡

IV. 2011년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계획²⁾

1.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 발굴

- 양적 육성 추진 후 성공모델 발굴 등 질적 발전 촉진
- 충청남도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연계, 잠재 사회적기업분야별 전수조사 실시 발굴
-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의 단계적 전환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연계 발굴
 -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활용
 - : 풀뿌리 마을기업 활용
- 지역자원 활용형 사회적기업 발굴
- 사회적기업가 발굴 육성

2. 사회적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

- 사회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민학관거버넌스 체계 구축
- 사회적기업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협의회 구성
- 전문지원기구 설립 : 민학관거버넌스 구축
-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구성운영
-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감대 확산
- 사회적기업 전담부서 설치

3. 사회적기업 자립경영 지원

- 충남형사회적기업이 수입구조를 창출할 수 있도록 행·재정지원
- 사회적기업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2) 충청남도, 2011년 충남형사회적기업 선정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회의자료, 2011.3.25

-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
- 우선구매 및 서비스 위탁 확대
- 1사 1사회적기업 결연
- 민간의 사회적기업 생산품 소비촉진

IV. 향후 추진과제

○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의 발굴

- 전략과제로 추진 중인 “충남사회적경제실태 및 활성화방안”의 충실한 수행 (충남발전연구원+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 고용노동부 특화사업 : “충남농업법인 실태조사 및 교육, 컨설팅 연구”를 통한 사업자 발굴(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충청도 실국의 대상사업 발굴 및 시군을 통한 대상사업 발굴
-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예비사업자, 시군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관련 교육 실시

○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의 신청

-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예비사업자에 대한 상시 상담 및 컨설팅 수행(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설명회 장소 상담 및 충남 권역별 상담(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상시 상담 및 컨설팅(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 미 선정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에 대한 컨설팅

- 2011년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에 미 선정된 사업자들에 대한 컨설팅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선정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에 대한 컨설팅

- 기 선정된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해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
-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의 성공사례 발굴 대회 개최

○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증진 및 공감대 확산

- 충남사회적경제연구회에서 사회적경제의 이론 및 존재양태에 대한 학습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충남도의회 사회적경제연구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충남도사회적경제정책기획단 구성을 통한 충남도차원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부록] 충청남도내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정 현황

□ 충청남도내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16개)
현재)

(2010. 12월)

연번	기업(단체)명	사업명	사업유형	대표자	소재지	대표전화
1	(주)플러스	재생고형원료 생산	지역연계형 (2008)		금산군	
2	하늘나무노인 복지사업단	재가노인서비스	지역연계형 (2008)		천안시	
3	아산YMCA 아가야	시간제아기보육	지역연계형 (2008)		아산시	
4	(사)한빛회	지적장애인꽃배달	지역연계형 (2009)		천안시	
5	(주)두레마을	청소, 소독용역업	일자리제공형 (2009)		연기군	
6	충남교육 연구소	농촌지역 방과 후 교실	지역연계형 (2010)		공주시	
7	하늘땅영농조합	농산물생산·가공 유통	지역연계형 (2010)		논산시	
8	(주)천안돌봄사회 서비스센터	간병가사지원	지역연계형 (2010)		천안시	
9	(주)휴먼에듀피아	요양, 노인 및 장애인 서비스지원	일자리제공형 (2010)		연기군	
10	(주)천안택배	택배사업	일자리제공형 (2010)		천안시	
11	숲속마을 작은학교	교육	혼합형 (2010)		금산군	
12	조치원 YWCA	친환경“올리”	일자리제공형 (2010)		연기군	
13	논산YWCA	친환경“올리”	일자리제공형 (2010)		논산시	
14	(주)사람	작업복 등 의류	일자리제공형 (2010)		당진군	
15	(주)다인돌봄	보호자없는 병원	혼합형 (2010)		서산시	
16	(주)부여복지마을	집수리, 청소	일자리제공형 (2010)		부여군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6개)

(2010. 12월 현재)

연번	기업(단체)명	사업명	사업유형	대표자	소재지	대표전화
1	천안모이세	이주민문화체험	지역연계형		천안시	
2	아산지역아동센터연합회	행복한 밥상	기업연계형		아산시	
3	나누미지역아동센터	의류잡화재활용	모델발굴형		아산시	
4	(사)세종사회서비스연대	찾아가는 문화복지	기업연계형		연기군	
5	풀무소비자생활협동조합	친환경 채소 가공, 포장	지역연계형		홍성군	
6	천리포 수목원	산림수목번식 및 보전 관리	모델발굴형		태안군	

□ 충남형(지역형예비) 사회적기업('10.11.1 지정, 17개)

(2010. 12월 현재)

일련 번호	기업(단체)명	대표자	사업내용	유형	인력 지원	소 재 지
계	17개 기업				일반 84 전문 13	
1	(주)즐거운밥상		도시락, 출장 뷔페 등	일자리	일반 3 전문 1	
2	밤뜨래영농조합		밤 가공·판매 등	일자리	일반 7 전문 1	
3	(유)금산주거복지 센터		주거개선사업	혼합형	일반 4	
4	(주)드림엔챌린지		뮤직카페, 공연, 이벤트, 여행 등	일자리 제공형	일반 10 전문 1	
5	전통연희단 난장애판		전통예술 공연	혼합형	일반 5 전문 1	
6	(사)국선명상협회 자연건강증진사업단		건강지도사 양성 및 건강강좌 운영	혼합형	일반 4 전문 1	
7	(사북)한국 지역사회복지회사 새하얀세탁 공장사업단		빨래공장 운영	일자리	일반 3 전문 1	
8	(주)온양온천시장		주차장 및 택배	일자리	일반 5	
9	(주)희망우리사랑 서비스 세탁사업단		세탁 서비스	일자리	일반 5 전문 1	
10	(주)깨끗한사람들		세차, 소독, 청소 등	일자리	일반 5 전문 1	
11	(사북)세종중앙재단 다향돌봄센터		장기요양 서비스	서비스	일반 5 전문 1	
12	서천군귀농인 협의회		귀농지원, 농산물 판매	혼합형	일반 5 전문 1	
13	얼굴있는먹거리 영농조합		먹거리 생산·가공· 유통	일자리	일반 5 전문 1	
14	(주)나눔건축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일자리	일반 2	
15	청양칠갑산토마토 영농조합		농산물 생산 및 판매	일자리	일반 4	
16	홍성유기농영농조합		직영농장, 친환경 채소 육묘	일자리	일반 7 전문 1	
17	(주)지랑		전통장류 생산, 판매	혼합형	일반 5 전문 1	

□ 충남형 사회적기업('11.3 지정, 14개)

(2011. 3월 현재)

기업(단체)명	지역
소 계	14
1. (주)밥상	서산
2. 자활영농조합법인	예산
3. 내포생태교육 연구소 내 생태교육지원센터	예산
4. 개목마을 영어조합법인	태안
5. 금산도토리ilter 영농조합법인	금산
6. (주)사랑과 행복나눔	연기
7. 청정유통 영농조합법인	부여
8. 에텐영농(주)	서천
9. 농업법인회사 홍성폴무(주)	홍성
10. (주)거상 펄프산업	천안
11. (사)한산모시 조합	서천
12. 형제마을영농조합법인	예산
13. (사)충남시각장애인 연합회내 당진재활용	당진
14. 청양구기자원예농업협동조합	청양

주 : 인증요건 충족기업(9개기업), 인증요건중 경미사항 미충족 기업 조건부 선정 (5개 기업).

□ 자립형공동체사업('10.9 지정, 11개)

(2010.12 현재)

시군	단체명	사업명	사업내용
천안시	양곡마을회	민속마을체험	- 짚풀공예 체험장운영 - 솟대, 장승각기체험장 - 체험마을조성을 위한 숙박시설
공주시	공주풀꽃이랑마을 영농조합법인	주말도시체험관 운영 및 농산물 가공 직거래 활성화도모	- 주말도시체험관운영 - 1사1촌 직거래방문판매 - 박람회 및 전시회참여 - 특산물(밤)가공
부여군	내산면묘원리아라 작목반	오디 건강 체험 마을 조성	- 기반조성: 체험마당조성 - 수확물저장창고신축 - 족욕시설,재리식오디주,잼,체험시설만들기
부여군	웰빙산약초공동체 (백제인동마을)	웰빙 산약초 공동 체 기반조성	- 생산기반조성: 한계농지산약초재배, 수집 포지조성 - 산약초세척,삶기,건조,포장 등 작업장 및 시설확충 - 저장시설설치
서천군	홍림1리마을회및 부녀회	반송정고택체험 마을조성	- 130년고택역사교육체험,제헌의원 이훈구 박사묘역정비 - 홍림저수지주변정리 정돈재정비 - 천연염색재료재배,야생화단지조성,대나무 공예가공 및 판매 - 마을주변대숲, 솔숲 산책로정비 정돈
홍성군	홍동마을자치주민 모임	홍성마을자립지원 센터설립및운영 지원사업	- 홍성마을자립지원센터설립및운영 - 마을역량강화를위한네트워크사업 - 마을단위순환형비즈니스모델발굴-명소화
홍성군	문당권역마을	지역자원활용형 공동체사업	- 친환경쌀을이용한쌀빵,쌀가공식품개발 - 환경농업교육관에찾아온소비자체험및홍보 - 문당정보화마을인터넷판매및현장판매
예산군	예산흙사랑귀농인 모임	슬로우푸드체험장 건립및생태체험 교육농장조성	- 슬로우푸드체험관건립 - 생태체험및교육농장운영
예산군	형제마을영농조합 법인	의좋은 형제마을 사람들	- 지역공동체인 영농조합법인을 통한 주민 일자리 창출 - 절임배추, 된장, 한과, 불루베리판매 - 도시민과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체험교실 운영
태안군	포지2리영농조합 법인	지역특산품및자연 자원개발	- 마을공동특산품및자연자원개발 - 농촌체험관광사업 - 고추,떡,자연약초상품개발
당진군	당나루물꽃송마 마을	그린시범마을대호 대교늘지생태공원 조성	- 낚시체험지역(좌대)조성관광지화 - 대호대교 밑 자전거거비치 대호만순회 코스화 - 그린시범마을이미지부각 - 당진포2리특산품(차가버섯,항암쌀)홍보,직 판매

□ 풀뿌리 마을기업 선정내역('11.3 지정, 26개)

(2011.3 현재)

시·군	단 체 명	사업 내용
천안시 (2)	광 덕 마 을 회	· 전통장, 도예체험 프로그램 운영 · 광덕산 방문객대상 산나물 판매
	양 곡 마 을 회 (2 차 년 도)	· 두부만들기 솜대제작 체험프로그램 운영 · 산나물 재배 및 판매
공주시 (2)	무르실마을 영 농 조 합 법 인	· 자연공예물 제작 프로그램 운영 및 판매 · 오토캠프장 운영
	산성 자연애 영 농 조 합 법 인	· 유기농 알밤 가공·납품 · 숙박시설 운영 등
보령시 (1)	현 대 시 장 상 인 회	· 가판대 및 냉동고 설치를 통한 시장 활성화
아산시 (1)	다라미 지운영농 촌 전 통 테 마 마	· 지운영축제 및 생협 소비자 연계 장아찌 등 발효식품 생산·판매
서산시 (2)	어 송 에 코 빌 리 지	· 폐현수막 활용 제품(마대 등) 제작·판매
	서산 약바위 빌 리 지	· 특산물(콩, 고추, 배추) 가공·판매 · 체험학습장 활용 프로그램 운영
논산시 (3)	상 만 목 농 촌 유 학 마 을	· 도산초등학교 유학생 민박시설 설치 · 학교와 연계프로그램 운영
	문화협력 마을 공 동 체	· 전통한옥 활용 숙박·음식 체험 · 전통혼례 등 행사 유치
	화곡리 마을공 동 체	· 옛길 및 등산로 조성 · 자장정사 템플스테이와 농촌체험마을 연계
계룡시 (1)	(사)그린환경연 합 1 1 9	· 폐자원(현옷, 폐금속, 폐전지)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금산군 (1)	희망공동체	· 특산물(콩, 고추) 활용 장류 가공 및 판매

시·군	단 체 명	사업 내용
연기군 (1)	삼기영농조합법인	· 특화작물 재배 및 가공·판매
부여군 (1)	화외밤나무영농조합법인	· 알밤줍기, 전원체험프로그램 운영 · 밤 허브 등 특산물 판매
서천군 (3)	(사)금강생태환경운동연합 '초록지기사업단'	· 두류가공센터 운영 · 두부, 어묵, 장류제조·판매
	지역 학교 포럼	· 전문가 활용 인형극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 농촌지역 교육 활성화
	홍림1리 마을회 (2 차 년 도)	· 반송정고택 활용체험프로그램 운영 · 인근 뉴시터 방문객 대상 연계
청양군 (2)	꽃피영농조합법인	· 맥문동 직수매 및 계약재배로 농가소득 확대
	천 장 리 알 프 스 마 을	· 여름, 겨울에 축제 개최와 연계 지역농산물 직판매 · 도농교류 추진
홍성군 (2)	홍 동 면 문 당 권 역 3 개 단 체 (2 차 년 도)	· 친환경쌀 활용 쌀빵 등 가공품 생산·판매 · 환경농업교육관 활용 체험프로그램 운영
	홍동마을 자치주민 모임 (2 차 년 도)	· 지역센터 마을활력소 설립 운영 · 마을 역량 강화 네트워크 사업 등
예산군 (1)	친 환 경 전 통 어 머 니 손 맛	· 장류 및 한과 제조·판매
태안군 (2)	몽 산 포 영 농 조 합 법 인	· 호박고구마 과자 제조 및 인근 해수욕장 관광객 대상 판매
	포 지 리 포 동 마 을 회 (2 차 년 도)	· 농특산물 가공 및 자연약초 재배 판매
당진군 (1)	올리고마을 영 농 조 합 법 인	· 올리고문화체험과 연계 단호박 식혜 제조·판매

캐나다 퀘백의 연대협동조합 3)

“사회적기업은 어떻게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표를 조화시켜낼 수 있을까.”

Jean-Pierre Girard, University of Sherbrooke, Canada, in co-operation with
Genevieve Langlois,

많은 유럽국가들에서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들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차원이 혼합된 새로운 요구들에 부응하면서 협동조합 모델의 개선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연대협동조합들이 있는 캐나다의 퀘백을 제외하면 북미지역에서 이러한 모델은 아주 제한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퀘백에서는 지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동안 479개의 연대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연대협동조합은 시민사회의 새로운 활동가들을 유인해내면서 성장해왔다. 실제로 연대협동조합들은 환경, 레저, 공정무역, 보건처럼 협동조합의 새로운 테마를 포함한 여러 산업분야에서 다양하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설립될 수 있다.

이 장은 우선 전지구적 차원에서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의 발전에 대하여 개괄하고, 퀘백 연대협동조합들의 이념적 배경에 대하여 설명할 것이며, 개념적 정의와 정책적 처방을 내리는 법적 규정에 대하여 소개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1997년 법제화 이후의 형식적 발전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현재 협동조합의 숫자와 참여자 수, 관련산업분야 및 지역적 분포와 관련된 자료도 이어진다. 마지막 장은 연대협동조합들이 사회통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프로젝트의 주요쟁점들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보건분야에서 발전하고 있는 연대협동조합들을 주요하게 살펴볼 것이다. 끝으로 몇가지 조언도 제시할 것이다.

서문

북미의 그 어떤 지역과도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캐나다의 퀘백은 협동조합이 성장하기에 좋은 토양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다. 협동조합은 천연자원에서 주택, 보건, 장례절차 등의 서비스 업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산업분야에서 발견된다. 최근까지 협동조합의 세가지 주요 유형은 생산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그리고 여전히 가장 대중적인 소비자협동조합이었다. (각주 1)

1997년 퀘백주 의회는 협동조합법을 개정하여 연대협동조합 설립을 허용하였다.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대협동조합은 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와 본 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동시에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더 나아가 연대협동조합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관심을 가진 외부인 또는 기업도 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원을 여기에서는 ‘후원 조합원’(supporting

3) 본글은 함께일하는재단에서 편역 출간 예정인 (가칭) ‘변화하는 사회적기업의 경계’(2009, OECD)초벌 번역본입니다. 아직 미완성 원고이므로 공개나 인용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member)이라고 명칭한다.” (Quebec, 1999)

그러한 형태의 협동조합은 북미에서 최초일 가능성이 높다. 인구가 770만에 불과한 퀘벡으로서는 대단히 인상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델 자체의 독창성과 언어장벽(각주 2) 탓에 이러한 주제는 좀처럼 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동안 479개의 연대협동조합이 설립되어 현재 300개가 활동 중이다. 이는 협동조합운동에 있어 일종의 르네상스라고 말할 수도 있다. 연대협동조합들은 시민사회의 새로운 활동가들이 매력을 느끼게끔 디자인되었다. 실제로 연대협동조합은 창의적인 방식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리고 환경, 레저, 공정무역, 보건 등 협동조합들에게 새로운 다양한 사업분야를 넘나든다. 비교적 짧은 시간 만에 마침내 연대협동조합들은 협동조합섹터의 역할을 더욱 활기차게 해줄 방편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다른 측면에서 연대협동조합은 세계경제와 신기술들이 잠재적으로 자본과 노동, 지식의 무제한적 이동을 요구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경제와 사회분야 사이의 분절된 관계성의 회복을 의미한다. 연대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되며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해 복무한다. 지역에 뿌리내린 연대협동조합들은 이러한 탈지역화 즉 세계화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며, 지역의 사회경제적 필요와 세계경제 시스템이 부과하는 도전과 기회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한다. 동일조직 내에 노동자와 소비자의 결합은 수요와 공급이 통합된 단위의 출현을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이와 같은 조직형태는 자원활동가들이 제공하는 자원과 기부를 증가시켜내고, 그로써 기부와 호혜의 가치를 더욱 강화해주는 새로운 수단임에 틀림없다. 달리 말하면 연대협동조합들은 Laville(1997)가 자원혼합이라고 부르는 것, 예를 들어 서비스나 생산품의 시장판매수익, 세금처럼 공적으로 모아진 자원의 재분배와 공적 보조금 그리고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모아진 자원 등에 문호를 개방하였다. 게다가 새로운 협동조합법이 규정한 개인과 기관으로서 후원 조합원의 등장은 협동조합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일련의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사건들이 생겨났다.

● 지역의 스키 리조트를 살려내기 위하여 주민 3000명의 작은 마을이 강력한 동원력을 발휘. 스키센터를 매입하고 그것을 경영하기 위한 연대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2주 만에 거의 미화 50만불 정도의 기부를 이끌어내었다. <Co-opérative de solidarité récréotouristique du Mont Adstock>(각주 3) 라는 이름의 이 연대협동조합은 1998년부터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 2003년 오타와 근처 Gatineau에서 의료센터를 운영하던 의사들이 지역의 힘을 키우기 위해 지역사회에 자신들의 의료기관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불과 5년이 지나지 않아 거의 1만명의 시민들이 미화 50불씩의 사회적 분담금을 약정

하고서 에일머르 의료생협(Aylmer Health Coop) (각주 4)의 조합원이 되었다.

● 퀘백 Gaspé 지역의 외딴마을 St-Tharcicius에서 모든 기초 생필품점의 폐업이란 상황에 직면한 주민들이 편의점이나 주유소 등의 기본적인 근린 서비스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대협동조합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연대협동조합이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결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생존을 보장하는 탁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명증해 주는 사례이다.

이 장의 목적은 퀘백에서 연대협동조합의 발전 정도를 가늠해보는 것이다. 우선 전 지구적 차원에서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의 발전에 대하여 개괄하고, 퀘백 연대협동조합의 이념적 배경에 대하여 설명할 것이며, 개념적 정의와 정책적 처방을 내리는 법적 규정에 대하여 소개할 것이다. 우리의 논의는 1997년 합법적 지위를 획득한 이후 연대협동조합들이 어떻게 진화하였는지 약술하면서 계속 진행된다. 협동조합과 참여 조합원의 수, 사업분야와 지역별 분포를 드러내주는 최신자료도 제시될 것이다. 이어서 연대협동조합들이 사회통합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프로젝트의 쟁점사항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보건분야에서 발전하고 있는 연대협동조합들을 주요하게 살펴볼 것이다. 결론에서는 주로 연대협동조합들이 발전하면서 직면하고 있는 일상의 도전과제들에 대해 주목해보려 한다. 약간의 조언도 잊지 않을 것이다.

전 지구적 차원의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의 발전

전 지구적 차원에서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에 대한 관념은 새롭기도 하지만 동시에 익숙한 것이기도 하다. EU 회원국이나 지방정부로부터 합법적 지위를 획득한 지 불과 20년 남짓이라는 면에서는 새롭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지난 20세기 협동조합 성장의 기본동력은 소비자협동조합, 생산자 또는 노동자협동조합과 같이 단일 계층으로 이루어진 협동조합 모델의 주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여질 수 있다. 그러나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이란 개념은 익숙한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협동조합과 지역사회의 밀접하고 지속적인 관계성에 대한 이념이 협동조합의 선구자들에게 중요한 문제였고, 이러한 생각이 협동조합의 발전을 수십 년 앞당겼기 때문이다.

이완 맥퍼슨(2004)은 1992년부터 1995년까지 국제협동조합연맹(ICA) 협동조합 회칙위원회 의장을 맡았다. 그는 로버트 오웬(각주 5)과 로치데일 공정개혁자들(1844)에게서 발현된 공동체주의 철학을 뿌리로 하는 이러한 이념에 관한 심층적인 정리를 제출하였다. 맥퍼슨은 최근 ICA 총회들이 변화를 열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1980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총회에서는 알렉산더 레이드로우가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이란 자신의 보고서(1980)를 통해 협동조합들이 직면한 몇 가지 도전과제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레이드로가 제시한 네가지 중요한 기회들 중에서

협동조합 지역사회를 만들자는 생각은 호소력이 있었다. 1984년 ICA 함부르크 총회에서는 구소련의 미셸 트루노프가 협동조합의 강력하고 역동적인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특히 맥퍼슨은 1995년 ICA 맨체스터 총회를 협동조합과 지역사회의 관계가 재건되는 전환점으로 보았다. 맥퍼슨은 그것을 협동조합의 사회적 차원이라 말하고, 적어도 여섯 가지 구성요건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여섯 가지 구성요건은 아래와 같다.

- 합의된 정의(국제적 활동을 통해 합의된 최초의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 안에 “문화”,
- “사회적 필요” 그리고 “열망” 이란 용어를 삽입하는 것
- 가치선언 안에 “사회적 책임” 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돌봄” 이란 용어를 삽입하는 것
- 포괄적인 조합원 가입요건에 대한 접근을 구체적으로 장려하는 것
- 조합원 참가와 관리를 강조하는 것(자연스럽게 보편화된 협동조합적 권고의 하나)
- 협동조합을 단순히 조합원들의 응집으로 바라보는 경향을 고집하기보다 “공동의 자본”이 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
- 협동조합의 제7원칙에 따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 (MacPherson, 2004)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의 제7원칙은 “협동조합이 조합원에 의해 승인된 정책에 의해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확인하였다.

맥퍼슨은 많은 협동조합들 사이에 주로 투자자가 주도하는 회사와 같은 다른 형태의 영리기업들로부터 경영이론을 절취(cut and paste)하려는 강력한 경향성이 있음을 서술한다. 맥퍼슨은 이 결과가 자명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민주적인 관리구조를 경시하고 “공동 자본” 시스템의 이상과 현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더 나아가 협동조합 공동체주의가 사적기업 모델의 지배에 대한 진정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협동조합 공동체주의는 일반대중의 관리와 참가에 기반하며 상호성에 대한 훈련에 달려있다. 개인의 발전이 집단적인 협력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주도에 따른다는 입장의 개인주의는 배제한다.”

국가 차원에서도 다양한 차이가 존재한다. 보다 풍부해져가는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수년 사이에 “국제협동조합 운동의 방향이 공동체주의적 전통을 다시 활성화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Borzaga and Spear, 2004)

보르자가와 스피어(2004)가 인용한 Galera(2004)는 협동조합의 다른 형태의 발전모델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흥미로운 틀을 제시하였다. 이는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모델에 두세가지 차원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준다.

1. 상호주의모델: 엄격하게 조합원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 협동조합이라고 간주하다.
2. 사회적모델: 협동조합을 지역사회의 이익에 보다 개방된 조직으로 설명하다.
3. 중간모델: 협동조합을 규제하는 법률에 정의된 상호주의 개념이 협동조합의 상호적 본성과 사회적 기능에 대한 요청에 의거한 서로 다른 또는 종종 정반대의 해석에까지 개방되어온 그러한 조직체로서 간주하다.
4. 준공공성 모델: 협동조합 조직을 공기업처럼 이해하고 그 지배원칙이 공공기관에 의해 규정받는다고 간주하다.

이 시점에서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 왜 그토록 짧은 시간 만에 주목받게 되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동조합 모델이 높은 관심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 단일한 이유로 설명할 수는 없다. 그보다는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작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경제, 글로벌 기술

경제적인 세계화와 그에 동반된 많은 결과들로 인하여 경쟁적인 환경과 자본, 노동, 지식의 무제한적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많은 기업들은 자신들의 본래 근거지를 특별하게 고려할 필요없이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활동하게 되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다음은 Münkner 의 이야기이다. (2004)

“다국적기업과 지구적인 경영체들은 사람들(노동자, 소비자 또는 시민)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는 고려하지 않고 이윤을 축적하는데 최상의 조건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들의 기업들을 재구성한다. 시골마을과 작은 도시의 주민들은 비고용 상태에 남겨지고 기본적 서비스(가게, 은행, 학교, 대중교통)로부터 배제된다. 일하는 사람들의 정착지가 실직자들의 주거지로 전환된다.” (Münkner, 2004)

여러 가지 가능한 전략들이 있음에도 기업은 자신들이 위치한 지역사회를 고려하지 않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간단히 외주화한다. 따라서 ‘전 지구적 경제와 지역 사회의 강한 관계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라고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시민사회와 글로벌 경제 사이에는 충돌이 발생한다.

인구학적 변화

의학과 제약기술의 발전에 따른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의 증가는 우리 사회에 극적인 인구학적 변화를 유발하였다. 높은 이민율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점차 고령

화되어 가고 있다. 일본을 예로 들면 1980년부터 2005년 사이에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두배가 되었다. 2006년 고령자 비율은 일본 전체 인구의 대략 20%에 이르렀으며, 2050년에는 40%가 될 것이다.

“ 이러한 추세는 개인주의의 성장, 가족의 해체, 전문직 청년들의 단독가구화, 장애인과 고령자를 돌보는 전통적인 가족형태의 포기, 공공안전체계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생겨난 것이다. 보건, 주거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욕구증가는 공공재원에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공적 시스템은 점점 더 감소하고 있는 적극적인 참여자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Münkner, 2004)

국가의 역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난 “영광의 30년”(1945-1975)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특징된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 이후 “오일쇼크”와 인플레이션을 만나면서 국가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연속되는 많은 적자로 확대되었고, 그 결과 채무는 산더미처럼 늘어나 그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공공 재정에도 무거운 짐이 되었다.

그런데 예산삭감과 특히 건강과 사회적인 서비스 분야에서 늘어나는 욕구들을 어떻게 결합시켜낼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은 공적서비스를 위한 재정과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수단을 모색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그에 대한 해답은 공공 기금과 자발적인 기부를 결합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공익적인 시민사회의 협력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방법에 대한 모색은 능률적이고 효과적이면서 곧바로 반응이 나타나야 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캐나다 행정부를 위한 연구프로젝트 “시민사회와 공공서비스의 미래에 대한 협동조합적 대안”을 주도했던 레스타키스와 린드퀴스트(2001)의 관점에도 국가를 위한 새로운 역할조정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다. 그들은 “정부의 전통적인 역할과 책임이 우리사회가 직면한 강력한 도전들에 대응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폭넓은 인식의 출현”을 강조한다.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모델의 추가된 가치

국제적인 차원에서 협동조합 모델이 경제와 빠르게 확장되는 영토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최상의 조직적 모델이었다는 믿음이 있다. Draperi(2003)에 따르면 많은 요소들이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 협동조합들은 지역 활동가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 협동조합들은 자발적인 공동참여에 의존한다.
- 분할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 협동조합들의 자본은 지역을 이탈할 수 없다.
- 일반적으로 협동조합들의 규모는 주변지역의 범위에 필적한다.
- 협동조합의 발전은 조합원의 책임이며 1인 1표의 원칙에 대한 존중 속에 이루어진다.

혁신과 책임의 문화를 증진시켜 시민사회를 결집시켜내는 것은 협동조합적 대안의 핵심적인 강점으로 보여진다. (Restakis and Lindquist, 2001) 스테파노 자마니(2001)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관계재(relational goods)라고 말하는 것들의 조달에 태생적인 강점을 보여준다. ... 협동조합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핵심적인 서비스가 특별한 전문분야이거나 인간관계에 집중된 것을 수반할 때 자본력을 지닌 영리기업들을 능가할 것이다.” 더구나 협동조합들은 관계재의 생산과 유통에 있어 서로 협력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타협을 이끌어내며 보나온 이익(협동조합을 창립하게 해준 목표와 이익)을 위해 다양한 이해를 조율하려 한다.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모델에 대한 Münkner(2004)의 입장에 따르면 “이익의 조화로운 배분과 의사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증가라는 불이익은 이처럼 특별한 조직 형태로 인해 생겨나는 다양한 이익에 의해 균형을 이룬다. 예를 들어 보다 양질의 서비스(이용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와 거래 및 소통비용의 절감(지역상황과 참여자의 곤경에 대한 이해를 배경으로 생겨난 신뢰관계에서 발생함)이 그것이다.”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의 인식

1991년에 이탈리아는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을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독특한 형태로 공식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합법화는 거의 25년이나 되는 지역적 경험의 결과였다. 결과적으로 캐나다의 퀘벡, 포르투갈, 프랑스 역시 1997년, 1998년, 2001년에 각각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현존하는 협동조합법의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Münkner에 따르면 “다른 여러나라에서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은 기존의 협동조합법(독일), 지역사회의 이익을 증진하는 특별한 조직에 관한 법(영국), 사회적 목적을 지닌 비영리 조직이나 사회단체(벨기에) 또는 일반법(덴마크)에 근거하여 설립된다.”

어떤 법들은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 활동영역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법들은 단지 다중성(소유와 지배, 참가형식)의 개념에만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각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탈리아에서 법률 제 381/1991 은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을 지역사회에 보편적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서비스 또는 복지 및 교육서비스(A유형 협동조합)를 제공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냄으로서 사람들의 개인적인 성장을 증진하고 사회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Galera, 2004) 프랑스와 퀘백의 경우에는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특정한 사업활동분야에 집중하라고 강제되지는 않는다.

퀘백 연대협동조합의 배경

- 공제와 협동조합의 발전

퀘백에서 협동조합의 현재 모습은 19세기 중반 공제조합과 함께 시작된 집단소유 기업을 포함하여 오랜 성장경험의 소산이다. Peticlerc(2007)에 따르면 사회적경제의 첫걸음은 화재 및 생명보험을 포함한 다양한 보호막을 제공하기 위해 공제조합과 상호부조조합을 만들면서 구체화되었다. 강력한 연대의식과 자조정신은 주로 숙련 공들과 전문노동자들 그리고 농민들에 의해 주도된 이러한 운동이 성장하면서 점진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 <새로운 사태 - Rerum novarum>와 비오 11세의 <40주년 회칙 - Quadragesimo> 그리고 교회의 사회교리를 담아낸 회칙들에 고무되어, 가톨릭 성직자들은 도시와 시골지역 모두에서 노동자의 물질적 조건의 개선을 위해 적극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신용협동조합과 다른 형태의 협동조합들은 경제적이고 도덕적인 회복을 위한 해법이요, 농업적 진전을 이끌어낼 수단이며, 궁극적으로는 민중과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의 일체감을 강화시켜줄 도구로 보여 졌다.” (Girard, 1999)

1830부터 1930년까지가 농민협동조합과 1900년 레비스 지역에서 알폰소 데잘딘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신용협동조합(데잘딘 신용조합운동으로 알려진 대단히 중요하고 성공적인 협동조합 조직의 탄생시기)을 포함한 퀘백에서의 협동조합운동이 탄생한 시기라고 한다면, 연이어 1930부터 1945년까지는 협동조합 모델이 확산되고 다양화되는 시기로 보여 진다. 협동조합 방식은 점점 더 주택, 학용품, 식품, 임업과 장례서비스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부터 196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신용협동조합처럼 오랜 전통을 지닌 운동은 자신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굳건하게 하였다. 하지만 다른 분야의 협동조합들은 아직까지 역동적이지는 못하였다.

1960년부터 1980년까지는 고요한 혁명의 시기로 묘사될 수 있다. 국가적인 지지에 힘입어 퀘백의 공공시스템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활동 전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공공시스템은 보건과 교육분야에서 종교기관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경제발전을 담당할 다양한 국영기업을 만들었으며 여러 다른 분야

의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과 규정, 규범을 제정하였다. (Girard, 1999) 이 시기는 활력과 다양화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1930년에서 1945년까지가 협동조합을 새로운 섹터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간이었다면 이 시기의 목표는 협동조합을 체계화된 분야로 확장시켜내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잘 성장한 협동조합들의 지원에 힘입어 허드슨 강과 운가바 만을 따라 작은 원주민 공동체들이 있는 북부지방에서 이뉴잇 족 등이 참가하는 협동조합들의 설립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협동조합들은 생산품의 판매와 생필품의 공급이라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1980년에서 2000년까지의 발전의 시기는 변화, 전환 그리고 새로운 역동성이 특징이었다. Girard(1999)에 따르면 이 시기에는 “개개인의 성공, 개인주의와 내면으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더욱 강화되었다. 시장과 수요 공급의 상호작용이 새로운 질서로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미국의 영향 속에서도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내재적 발전 철학에 기초한 탁월한 지역발전기구들이 출현하였다.”(Girard, 1999) 공동의 협력을 통해 응급지원 노동자협동조합들(각주 6)의 네트워크는 개인 소유자들로부터 준의료기관을 매입하고 생명을 구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내륙의 몬트리올을 제외하고 이러한 협동조합 네트워크는 주요한 활동기구가 되었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 방식이 협동조합법 상 노동자 주주 협동조합으로 인정되었다. 그것은 사기업의 노동자 주식소유 프로그램과 유사하다. 농촌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프랑스에서 현존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프랑스 농민들은 co-opertives d'utilisation de machinerie agricole (CUMA)를 설립하였고 어떤 경우에는 여전히 co-operatives d'utilisation de main-d'oeuvre(CUMO)를 따르고 있다. 퀘백 어민연합과 같은 일부 협동조합 조직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소멸되었다.

퀘백의 협동조합 기업들과 공제보험을 위한 “퀘백 협동조합과 공제협의회”(le Conseil quebecois de la cooperation et de la mutualite CQCM - 각주 7)의 웹포털사이트는 협동조합에 관한 인상적인 시대적 자료의 원천이다.

- 32000개의 협동조합과 39개의 공제조직
- 850만 조합원들(개인과 기업들)
- 87000개의 일자리 60% 이상이 도심 외곽에서 활동하는 협동조합들에 의해 제공
- 연간 미화 220억 달러의 매출고
- 퀘백정부의 협동조합 담당부서(각주 8)의 조사에 의하면 협동조합의 생존율은 전통적인 기업들보다 대단히 높다. 설립 5년차에 영리기업의 생존율이 36% 수준인데 비하여 협동조합은 64%가 살아남았다. 그리고 10년차에 그 수치는 영리기업 20% 대비 46%에 이른다.
- 심도있고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는 부문별 활동(연맹), 지역협동(지역발전협동조합 - 각주9)에 기반하고 있으며, 지방 차원에서는 부문별 연맹을 결합한 CQCM, RDC 그리고 대학연구기관이 협동조합 연구에 기여하였다.

욕구의 출현

지구상의 많은 지역과 마찬가지로 1997년까지는 퀘백의 협동조합도 분명히 거대 협동조합 위주로 발전해왔다. 그것은 개인 소유기업, 소비자, 생산자, 노동자협동조합들의 쇠락으로 귀결되었다. 이해관계자(투자자)의 관점은 다음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 독특한 참가형태를 만들어내면서,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협동조합들은 서로 다른 또는 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질 수도 있는 구성원들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으로부터 도피하려하지 않는다. 금융서비스 협동조합 내부를 보면 투자자들은 자신의 예금에 대한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반대로 대출받는 구성원들은 자신이 빌린 돈에 대하여 최소한의 이자만 지불하려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유형의 협동조합 그룹은 상호책임협동조합과 달리 소비, 분배 또는 노동이라는 단편적인 논리체계에만 응답하고 있다.” (Girard, 2004)

퀘백에서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 개념적 배경은 연대협동조합과 관련이 있으며 다른 몇 가지 이유도 연관되어 있다. 적어도 네가지 이슈가 명백하게 정리될 수 있는데 그것들은 1986년부터 1996년까지 10년 이상 연대협동조합의 기본원칙을 둘러싼 논쟁의 결과물이었다.

1. 지역발전
 2. 시골마을의 소멸 또는 근린서비스 시설의 폐업
 3. 데이케어의 발전(보육시설들)
 4. 노동통합의 문제
- 다섯 번째 쟁점은 그러한 과정의 끝에 가서 1997년에 구체화되었다.
5. 고령자를 위한 홈서비스

지역발전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처럼 퀘백에서도 오랜 세월 동안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노력은 지역발전을 위한 실천들과 긴밀하게 연관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공동체 발전에 대한 구상은 더욱 분명하고 대중적인 관점 즉 지역발전이란 개념을 수용하였다. 실질적인 견지에서 그러한 개념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지자체나 신용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등 지역 차원에서 활동하는 기관을 대표하려는 시민그룹들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은 토론을 활성화하

여 성장전략을 구체화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도록 지원하는 조직들과 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 “민주적인 운영원칙들이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해를 조정해주는 이러한 구조들은 비영리 조직이란 법적형태를 고집해야 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법이 중시하는 규정들(소유의 독창성)은 협동조합 모델을 선택하도록 장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Girard, 2004)

시골마을의 소멸

퀘벡은 프랑스 면적의 거의 세배나 되는 큰 지역이다. 세인트 로렌스 강변(몬트리올, trois-rivieres, 퀘벡시, 기타 등등)을 따라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만 그 중심선을 벗어나면 대부분 시골지역이다. 대다수 마을은 농업이나 임업 등을 주력산업으로 하여 발전했다. 그러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시골지역에서 청년들이 도시로 이동해 갔다. 인구가 감소하자 많은 마을에서 우체국, 주유소, 식료품점과 같은 근린 서비스가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근린서비스의 실종은 많은 시골 지역사회에 생존의 위협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인들과 사적 또는 공적 조직들을 결속시켜보려는 아이디어가 지역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최소한의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설립에 관심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서 우세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했다. 그 당시까지는 이러한 요구가 협동조합법으로 고려되어 있지 않았고, 협동조합법 외에는 개별 또는 개인소유권에 관한 것이었다.

데이케어(주간보호)의 발전

지난 10여년간 노동시장에서 여성참여의 증가는 아동돌봄 서비스의 발전에 강력한 압박을 가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부모와 교육자라는 적어도 두가지 이해관계자가 현존하고 있다. 때때로 데이케어는 사기업, 병원, 대학, 대형은행본부 등의 직원들을 위해서도 제공되고 있다. 그 결과 기업 역시 이러한 서비스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그룹의 다양한 관심을 결합시켜내는 데 있어 협동조합이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들 때문에 데이케어센터들은 비영리 조직 모델을 선호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전 지역에 걸쳐 수천개의 기업이 되살아났다.

노동시장통합

네 번째 이슈는 취업에 장애가 있는 개인들을 노동시장에 통합 또는 재통합시켜 내는 일과 관련된다. OECD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1973년과 1991년 사이에 OECD 25개국의 실직자수는 1130만명에서 3000만명으로 증가하였다.(OECD, 1994) 1993년 퀘백의 실질 실업률은 활동인구의 22.8 %에 도달하여 인구수로는 87만3천명에 이른다.(Fortin, 1993) 게다가 1994년 사회복지 총 수혜자는 80만명이었고 퀘백 총인구의 10%에 달하였다.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말하여지길 부가가치의 창출과 일자리 사이에는 점증하는 긴장감이 있다고 한다. 고용수준을 강화할 목적으로 생겨나는 점점 늘어만 가는 많은 계획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많은 프로젝트들이 개개인들에게 대략 6개월 정도의 고용상태로서의 견습기간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이미 갖추어진 다양한 이익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에 의해 시행되었다. 여기에는 훈련생과 서비스 수혜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훈련감독기관의 이해도 포함되었다. 또한 협동조합적 모델에 적용하기에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다수가 1990년대에 생겨난 이러한 계획들은 비영리조직의 법적 체계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수년이 지나자 새로운 욕구에서 비롯되어 수많은 시민사회 활동가들에 의해 지지받게 된 이 신선한 사회 경제적 조직들은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연구에 불을 지폈다. 협동조합 모델을 어떻게 현대화할 것인가에 논의가 집중되었다. 퀘백에서 이 분야에 대한 가장 탁월한 경영대학원인 HEC 몬트리올의 “협동조합 연구센터”의 기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을 인정한 “협동조합법” 개정 수년전에 협동조합 관리센터(the centre de gestion des cooperatives - 각주 10)는 몬트리올 북서부 250km 거리에 위치한 Mont-Laurier라는 마을에서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occupational reintegration)과 재택 서비스(돌봄)를 결합한 시범사업(pilot project)을 수행하였다.(Ouimet, 1995) Defi-autonomie 라고 불리운 이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보건센터(Centre local de services communautaires - 각주 11)와 함께 추진되었고, 서로 다른 다양한 관계자들의 이해를 포착해낼 능력을 지닌 새로운 협동조합 모델 창조의 필요성 또한 보여주었다. 이러한 대학 협동조합연구센터의 수많은 협력자들은 1984년에 개최된 국제노동자협동조합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란 개념을 알게 되었다. 1984년 컨퍼런스 기간 동안 연구자들은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 증대와 스페인 바스크 몬드라곤 지역의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사례를 접하게 되었다. 그들은 또한 연이은 컨퍼런스를 통해서 참여자 및 주최자들과 함께 귀중한 정보를 교환할 기회를 가졌다.

홈 서비스들

홈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찾기에서 시작되었다. 심각한 공적채무와 낮은 고용율에 직면하여 퀘벡정부는 1996년 “경제와 고용 정상회의”를 주최하였다. 정상회담의 의도는 단순하였지만 도전적이었다. 기업, 노동조합, 협동조합, 여성조직, 주민조직 등의 퀘벡사회의 수많은 핵심단위들을 한자리에 모아내고자 하였다. 정상회담의 과제는 공공채무를 제어할 수 있는 실용적인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었고, 고용창출과 유지에 관한 퀘벡의 성과를 향상시켜내는 것이었다.

3월부터 10월에 이르는 수개월 동안 여러개의 클러스터로 나뉘어 작업을 하였다. 각각의 클러스터에는 다양한 조직의 대표자들이 참여하였으며, 1996년 10월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마지막 회의에 제출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중 특별히 하나의 클러스터가 le chantier de l'économie sociale (각주 12)란 이름으로 사회경제체에 주력하였다. 이 클러스터는 지역개발기업(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s)과 지역경제개발기업(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여성단체, 노동조합, 데잘딘(Desjardins), Co-operative Apex organization(CCQ) 등의 사회경제 조직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었다. 이 클러스터는 신속하게 홈 케어 서비스를 잠재적으로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간주하였다.

“다른 서구사회의 사례에 따르면 퀘벡도 현저한 고령인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연로하여 자신의 자율성을 상실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물리적 한계가 걱정되는 공적 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대단히 큰 비용이 든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노인들을 집에 머물도록 독려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역사회 보건센터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기본적으로 일할 수 없고 가사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방문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Girard, 2004)

이러한 보호서비스들의 중요한 부분이 국가의 어떠한 재무관리도 없이 수행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재가돌봄 사회적경제기업들(HCSEE)의 출범과 함께 그러한 서비스들을 구조화하려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일을 실현하는데 있어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이 서비스를 비공식적 경제의 영역에서 탈피시키고자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용창출에 특히 고용시장(노동인구로 다시 편입할 수 있는 수단)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위한 고용을 증진시키려 한다.” (Girard, 2004)

이 시점에서 조직의 합법적 형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새로운 조직은 비영리 조직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협동조합이어야 하는가? 최초의 해법은 양자의 조합을 이루어내는 것이었는데 이내 서로 격차를 드러냈다. 만일 비영리조직의 법적 형식이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있는 그대로 적용된다면 이것은 협동조합의 단일조합원 구성의 경우가 아니었다. 한편 소비자협동조합이나 노동자협동조합 중 하나를 선택하면 이 서비스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이용자들 또는 노동자들 가운데 누

군가는 과소평가되었다. 비영리 조직과 협동조합 사이에서 이처럼 불공정한 선택을 피하고자 Co-operative Apex organization(CCQ)의 대표자들은 다중이해관계자의 참여라는 관점에 기초한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을 설립함으로써 협동조합 모델을 개선하도록 정부에 요구할 기회를 가졌다. 과제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협동조합들의 활동에 영향을 받은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생겨난 이익들을 고려할 합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서비스의 질뿐만 아니라 가격의 측면에서도 재택서비스에 대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어하는 이용자들의 이해를 말하고자 하며, 노동 및 급여조건에 관한 서비스 노동자들의 이해도 거론한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기관의 목적을 공유하는 조직들 또는 개인들의 이해에 관해서도 이야기한다.” (Girard, 2004)

이 새로운 협동조합을 인정하도록 퀘벡정부의 공식 위원회를 개최할 때, CCQ와 협동조합법을 관장하는 정부부서인 ‘협동조합 관리부’(the Direction des cooperatives) 간의 긴밀하고 효과적인 협력은 해당법안을 보다 완전하게 개정할 수 있게 하였다. 의회는 1997년 6월에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연대협동조합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1997년 협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법률 226조(각주 13)를 통해 연대협동조합이란 개념은 구체화되었다. 법률의 주요조항은 정의, 자본구성, 이사회 구성 그리고 후원에 대한 반환이란 네가지 핵심 요소와 관련되어 있다.

정의

연대협동조합에 대한 법적 정의는 자신에게 별도의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연대협동조합의 법적 권한에 대해선 협동조합법 제3조에 기반한 협동조합에 관한 보편적 정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은 개인이나 참여기관들이 협동조합법이 정한 원칙에 따른 기업운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공동체 안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욕구를 실현해 나가는 법인이다.” (Quebec, 1999)

법률 226조 1항은 분명한 법적 권한을 지닌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과 달리 연대협동조합에 고유의 목적을 부여하지 않고 오직 조합원 범주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연대협동조합은 협동조합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로서의 조합원과 노동자인 조합원을 동시에 결합시켜낸다. 더 나아가 협동조합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경

제적, 사회적 이해를 지니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들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조합원을 앞으로 후원 조합원이라 부른다.” (Quebec, 1999)

따라서 연대협동조합에 관한 최초의 정의는 해당 협동조합이 이용자와 노동자 조합원 모두를 통합시켜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제3의 범주로서 후원조합원을 허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최근의 변화들

2005년 11월 연대협동조합에 관한 법조항에 일련의 변화가 생겨났다. 두가지 변화에 대해선 언급할 필요가 있다.

- 조합원 구성: 연대협동조합은 참여를 희망하는 이용자, 노동자 그리고 후원자 가운데 적어도 두가지 범주의 조합원이 참가하는 협동조합이다. 더 이상 이용자와 노동자 조합원으로 구성해야할 의무는 없다.
- 한 구성원이 협동조합 안에서 하나의 조합원 범주 이상으로 속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노동자 조합원이면서 동시에 이용자 조합원인 고용된 직원은 오직 하나의 범주에만 속할 수 있다.

첫 번째 지적은 중요하다. 단지 현존하는 연대협동조합이 자신의 조합원 범주를 셋에서 둘로 줄여낼 수 있다는 사실 외에도 첫 번째 지적사항에 따르면, 이용자로 구성되었건 또는 노동자 조합원으로 구성되었건 간에 모든 단일조합원 협동조합(single member cooperative)이 후원자 조합원이란 범주를 결합시켜냄으로서 연대협동조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선 아래에서 언급할 것이다.

연대협동조합들의 발전 (각주 14)

1997년 6월 연대협동조합이 합법화되자 곧이어 두 개의 연대협동조합이 창립되었다. 그이후 1997년의 남은 기간 동안 21개의 연대협동조합들이 추가로 설립되었다. (표 5.1) 이러한 초기 23개의 연대협동조합 그룹 가운데 11개는 일전에는 다른 협동조합 범주로 존립하던 것이며 그들은 연대협동조합이 되기 위하여 자신들의 법적 요건을 변경하도록 요구하였다. (Chagnon, 2008)

설립된 연대협동조합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7월 31일에는 최고점에 도달, 479개가 되었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새로 설립된 연대협동조합의 수적 증가는 상대적으로 지속되었으며, 그시기 설립된 모든 협동조합의 17%에서 32%에 이르

기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6년에 이 비율은 특히 조합원 범주와 관련된 새로운 법적 조항으로 인해 전체 신규협동조합 수 대비 62%까지 도약하였다. 달리 말하자면 연대협동조합은 퀘백에서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 가운데 가장 인기있는 모델이 된 것이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연대협동조합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체 협동조합 가운데 7.4%에서 10%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였다.

표 5.1 설립연도별 연대협동조합 현황

설립연도	신규설립 협동조합수	신규설립 연대협동조합		현존하는 연대협동조합	
		조합수	비율(%)	조합수	비율(%)
1997년	127	23	18.1	21	91.3
1998년	189	32	16.9	18	56.3
1999년	185	45	24.3	18	40.0
2000년	169	46	27.2	8	17.4
2001년	142	31	21.8	12	38.7
2002년	169	36	21.3	20	55.6
2003년	220	51	23.2	26	51.0
2004년	115	33	28.7	25	75.8
2005년	131	42	32.1	40	95.2
2006년	157	81	61.6	81	100.0
2007년	98	59	55.1	59	100.0
합계	1702	479	28.1	328	68.3

자료출처: Direction des cooperatives, MDEIE, 2007.

표 5.1의 자료는 2007년 7월 31일 현재, 1997년 이후 설립된 연대협동조합 479개 가운데 68.3%인 328개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료를 자세히 보면 1999년과 2001년 사이에 설립된 연대협동조합들이 가장 현저한 폐업율을 보여준다. 창립자들의 계획이 유효화하지 못하여 문을 닫았다는 일반적인 사실 외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설명은 없다.

연대협동조합에 관련된 새로운 수정조항이 협동조합법에 적용된 2005년 11월 17일부터 2007년 7월 31일 사이에 144개의 연대협동조합들이 창립되었다. 그들 가운데 61%가 세가지 유형의 조합원 모두를 결합시켰다. 전체 144개 중에서 9개의 단일조합원 협동조합들은 연대협동조합이 되기 위하여 자신들의 법인정관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결국 세 개의 연대협동조합은 이용자와 후원자 오직 두 가지 조합원 범주를 유지하고자 노동자 조합원의 범주를 삭제하였다.

활동영역

연대협동조합은 대단히 다양한 영역에서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가 사회서비스 즉 여가나 대인서비스 또는 재택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어 있

다. (표 5.2)

재택서비스의 경우에 1996년 정상회담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며 퀘벡정부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의 수준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클러스터의 제안들이 사회적 경제에 집중된 이후 정부는 재가돌봄 사회적경제 기업들(HCSEE)의 발전을 지원하도록 요구받았다.

“HCSEE의 네트워크 설립에 고무되어 정부는 이러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비공식적 경제 외부로 끌어낼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주로 한부모여성이)이 노동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고용창출을 증진하고자 하였다. 지방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의 설립에 보조금을 제공하여 HCSEE를 지원하였다. (각 기업당 미화 40,000불) 가사도움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이용자와 일상적인 가사서비스를 원하는 연약한 노인들의 요구에 따라 재정 보조 프로그램도 발전시켰다. 그 프로그램은 Programme d'exoneration financière en service a domicile (PEFSAD)라고 한다. 이용자는 자신들이 받는 서비스 비용의 일부만 지불하면 된다. 보조금은 가계수입이나 가족구성원수에 따라 제공된다. 서비스료가 미화 14달러라고 하여도 이용자는 4달러에서 10달러 정도를 지불한다. 차액은 PEFSAD에 의해 지불된다. 지난 7년간 어림잡아 미화 1억 6천만 달러가 이 프로그램에 투여되었다.” (Girard, 2006)

2005년도에 퀘벡에는 103개의 재가돌봄 사회적경제기업(HCSEE)이 있었다. 당시 연간 매출액은 미화 9천 1백만 달러에 달하였고, 대략 6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연간 550만 시간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대부분의 서비스는 노동가구의 고령자나 다른 가족들에게 제공되었다. HCSEE의 55% 정도는 합법적인 비영리 조직의 형태로 운영되었고 45%는 협동조합으로 등록하였다. 이러한 협동조합 대다수는 연대협동조합 모델을 선호하였다.

표 5.2 활동영역에 따른 연대협동조합 현황 (2007년 7월 31일 자료)

분야	연대협동조합 설립현황	연대협동조합 현재지표	
	조합수	조합수	비율(%)
숙박과 음식서비스	29	18	62.1
기술과 공예	4	3	75.0
예술과 공연	33	21	63.6
블루베리 농장	2	2	100.0
비즈니스 서비스	31	22	71.0
케이블 대리점	2	2	100.0
의류	4	0	0.0
상업	20	16	80.0
지역사회 단체들	1	0	0.0
컴퓨터 분야	12	6	50.0
건설	1	0	0.0

컨설팅 서비스	9	7	77.8
주간보호센터	11	5	45.5
경제개발	12	6	50.0
교육	10	7	70.0
농업	18	10	55.6
어업	3	1	33.3
식품점	24	13	54.2
임업	9	6	66.7
주택	15	13	86.7
레저	60	45	75.0
제조업	5	3	60.0
기타 서비스	29	24	82.8
대인 서비스	44	37	84.1
편집 인쇄	11	8	72.7
구매 그룹	2	1	50.0
재활용	15	9	60.0
학교 협동조합	2	0	0.0
사회서비스	50	37	74.0
운송	8	2	25.0
공익사업	3	3	100.0
합계	479	327	68.3

자료출처: Direction des cooperatives, MDEIE.

자료를 보면 최근에 설립된 연대협동조합 가운데 일부는 풍력이나 토지이용계획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기타자료

연대협동조합은 퀘벡 전역에 분포하고 있지만 주로 준도시지역이나 시골마을에 밀집되어 있다. 실제로 연대협동조합은 몬트리올과 그 주변부 그리고 퀘벡시와 같은 도시 지역에서는 비교적 드문 편이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자 심도깊은 연구까지 진행할 필요는 없다. 인구가 많은 도시에 비해 시골지역의 결속력이 훨씬 강할 것이란 가설만으로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표 5.3 의 자료는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협동조합들이 공표한 내용에서 발췌한 것이다.

- 연대협동조합이라 천명한 조합수의 증가
- 자산증가
- 잉여의 감소
- 조합원수의 증가

위에서 마지막 사례의 경우 조합원수의 증가는 면밀하게 검토하면 보건과 재가서

비스 협동조합의 증가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장 앞부분의 논의에서 일부 보건협동조합들의 경우 조합원 수가 수천에 이른다고 밝힌 적이 있다. 실제로 아주 특별한 경우이지만 어떤 보건협동조합은 조합원수 9000명을 넘어섰다. 연대협동조합의 재무상황은 성장을 위해 잉여를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취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5.3 연차 보고서에 따른 연대협동조합 자료 (단위, 미화 1000달러)

	2001	2002	2003	2004	2005
조합수(개)	89	97	114	130	145
자산총액	23,492	27,654	30,215	44,412	50,522
채산총액	10,577	12,242	12,763	15,464	16,080
매출총액	32,765	41,464	46,760	52,929	56,604
잉여금	1,462	658	400	307	-220
조합원수(명)	23,526	28,942	36,791	43,751	50,371
고용인원(명)	1,877	2,193	2,020	2,209	2,124

자료출처: 통계자료(2007), Direction des cooperatives, MDEIE

연대협동조합발전을 위한 지원

캐나다 다른 지역의 일반적인 상황과는 반대로 퀘백에서는 통합과 연대 그리고 시민사회의 참여라는 원칙을 지닌 협동조합적 선택이 경제 사회적 발전에 관한 주요의제의 일부가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은 협동조합에 대한 대단히 우호적인 환경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재정적 측면 외에도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자원들이 이와 같은 유형의 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투입되고 있다. 실제로 지역개발협동조합들은 수많은 협동조합들의 지지 하에 퀘백정부로부터 자신들의 수익 일부를 확보하고 있으며 고용을 창출해왔다. 다른 기관들도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새로운 기업들의 기업운영과 조직구성을 지원하는데 헌신하였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경제개발기업들(CEDCs)과 지역개발센터들(LDCs)로서 그들은 새로운 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다.

또다른 특별한 사례인데 잘 구성된 협동조합 네트워크도 지원이 가능하다. 데잘딩 운동의 한 분야인 데잘딩 신용보증(Desjardins Financial Security)은 자신들의 서비스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재가돌봄 분야의 협동조합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였다.

최근 수년간 금융 측면에서는 집단소유형태의 금융기업(finance collective enterprises)과 같은 독특한 방법들이 발전하였다. 벤처형 투자기금도 여기에 속하는데 이들은 협동조합이나 비영리 조직들에게 작게는 수천달러에서 수백만불까지 대부를 제공한다. Réseau d'investissement social de Quebec (RISQ)는 비영리 형식으로 만들어진 벤처형 투자기금으로 협력사업체에 금융을 지원하는 것이 사명이다. RISQ의 목적은 협력 사업체들이 사업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금융수단인 자본을

투여하여 그들의 경제적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 펀드는 미화 5만 달러까지 제공되지만 전체 총액은 다른 형태의 금융수단과 결합되어 미화 30만 달러에서 미화 40만 달러에 이르기도 한다.

1971년 이후 데잘딩 운동에서는 특별히 연대협동조합을 포함하는 집단소유기업들을 목표로 한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였다. *caisse d'économie solidaire Desjardins(CECOSOL)*이라고 알려진 이 금융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제적인 투자기관협회(INAISE)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INAISE는 1989년도에 설립되었으며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목적을 지닌 금융기관들의 국제적 네트워크이다.

두가지 관점에서 바라본 연대협동조합

- 사회통합 (각주 15)

연대협동조합들이 점차적으로 퀘백의 협동조합 지평을 구축해내는데 의미심장한 기여를 해왔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연대라는 관점에서만 그들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달리 말해 그들이 사회통합에 미친 영향도 평가될 필요가 있다. 퀘백주 몬트리올 대학의 사회혁신 연구센터(CRISES; Center for Research on Social Innovations)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수행한 연구의 주된 목적도 이 주제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협동조합 참가와 지구화: 시장관계로부터 사회통합 창조하기”라는 주제 하에 진행된 범 캐나다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본 연구 프로젝트는 사스카치완 대학의 협동조합연구센터와 협력하여 진행되었으며, 국가 전역의 각 대학들의 연구자들을 참여시켰다. (Fairbairn and Russell, 2004; Fairbairn and Russell, upcoming) (각주 16)

- 조합원참가는 사회통합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 세계화가 지역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 조합원에 근거한 사업체들은 새로운 경제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 캐나다의 정책입안자들은 광범위한 조합원기반 조직들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연대협동조합은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란 차원에서 볼 때 캐나다를 대표하는 독특한 사례이다. 이러한 모델이 점점 더 매력을 지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침내 CRISES(각주 17)는 그들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연대협동조합은 CRISES가 사회통합과 금융서비스협동조합들(Caisses Desjardins)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에서 이미 사용하였던 다섯가지 차원으로 분석되었다. (Malo, Levesque, Chouinard, Desjardins and Forgues, 2001) (각주 18)

그 다섯 가지 차원은 지역(territory), 접근성(accessibility), 고용(employability), 민주주의 수준(degree of democracy) 그리고 유대감(connectedness)이었다. 각각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지역(territory)

북아메리카의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지만 누군가가 속하게 되는 지역이란 것은 새로운 공간적 구조들 안에서 정의된다. 주된 질문은 연대협동조합들이 이 새로운 공간적 구조에 적합한가 아니면 여전히 그들은 전통적인 구조들 즉 퀘백의 가톨릭 교구로 정해진 공간적 구조에 따라 작동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다.

접근성(accessibility)

일반적으로 연대협동조합은 현 조합원과 미래의 잠재적 조합원이 새로운 생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 설립되었고, 이미 기존에 제공되던 제품과 서비스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접근방식을 개선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주요 의문사항은 연대협동조합들이 자신의 목적에 진심으로 충실한지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 또한 그들이 새로운 요구들에 대해 여전히 개방적 인지에 관한 것이다.

고용효과(employability)

노동자는 연대협동조합의 조합원 범주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노동조건이 개선되는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될 수 있다. 주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대협동조합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유사업종 노동자들에 비견될 만하거나 더 나은 상태인가? 협동조합들은 오랜 기간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온 사람들을 결속시켜내거나 재활해내는데 기여하고 있는가?

민주주의 수준(degree of democracy)

“한 조합원이 한 표”라는 일반적 원칙에 따라 협동조합 모델은 이미 경제적 민주주의를 수용하고 있다. 주된 질문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연대협동조합은 이러한 방식으로 진보하고 있는가? 연대협동조합에서는 어떤 방식의 민주적 절차가 선호되는가? 대의 민주주의이거나 직접 민주주의 또는 숙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인가? 선택된 민주적 구조형식은 이사회 구성이나 위원회 구조 등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가?

유대감(connectedness)

이 개념은 또한 네트워킹을 말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현존은 강력한 네트워킹에 문호를 개방한다. 주된 질문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어떠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기반 위에서 연대협동조합이 만들어졌는가? 연대협동조합이 생겨난 이후 무엇이 다양한 개인과 집단적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특히 서로 다른 범주의 조합원들 사이에 사회적 관계를 형성시켜냈는가?

연대협동조합에 관한 연구는 문헌고찰, 사례연구, 현장 활동가들과 그룹토론 그리고 종결세미나(concluding seminar)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게다가 연구책임자들은 퀘벡 정부의 협동조합 관할 부서인 협동조합부(Direction des cooperative)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반적인 연구과정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정부와의 협력으로 연대협동조합에 대한 최신자료를 쉽게 확보하게 된 것이다. 마침내 연대협동조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관련자들로 구성된 감독위원회가 2002년 출범하였고, 연구책임자들에게 일반적인 의견을 제시해주었다. 이러한 전문위원들도 종결세미나에 참가하였다.

사례연구

연대협동조합에 대한 심사숙고를 거듭한 뒤 서로 다른 활동영역과 지역으로부터 네 개의 기업들이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표 5.4) 이러한 연구는 정성적인 접근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지를 사용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인터뷰하였다. 예를 들면 노동자 조합원, 이용자 조합원 그리고 후원자 조합원을 조사하고 또한 지역개발협동조합이나 지역발전센터와 같이 연대협동조합 등의 집단소유기업들의 발전을 지원하는 기관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각주 19) 게다가 기관의 내부문서, 연차보고서 그리고 각각의 사례에 대한 세밀한 언론비평과 같은 자료들까지 다양한 문헌을 검토하였다.

네가지 사례는 연대협동조합에 관한 현실적인 의미에 대하여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해준다. 각각의 사례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가 당시 제출되었다.(각주 20)

La Corvee: 돌봄서비스 연대협동조합

이 연대협동조합은 몬트리올에서 동쪽으로 140km 떨어진 퀘벡주 동부지구 중심부의 작은 지방도시 세인트 까미유(saint camille)에 위치하고 있다.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집단소유기업가 정신의 영향을 받은 보편화된 실천철학에 의해 이끌려지는 독특한 감성이 있다. 프랑스의 유명월간지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는 2006년 8월호를 통해 세인트 까미유와 브라질의 도시 포르토 알레그로에서 민주적인 삶과 시

민사회 결속의 관계성을 비교하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Cassens, 2006) 이런 사실에 입각하여 이 연대협동조합이 집단적 실천의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많은 지역과 마찬가지로 세인트 까미유 역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황금기를 경험하였다. 당시는 농업활동이 매우 인기가 있었다. 이 시기가 지나자 세인트 까미유는 지속적인 인구감소란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1986년 전업농민들의 연합조직인 농민생산자연맹(UPA)의 전회장을 포함한 네 명의 리더그룹이 Groupe du Coin 이란 영리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회사의 설립목적은 지역재생을 지원하고 지역농업의 전통을 보존하는 것이었다. 아이디어는 단순하였다. 지역재생운동을 지원하고자 오래된 건물에 대해 현금결제할인을 통해 자금을 모으고 그 돈으로 회전자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각자 미화 1200달러의 자본을 지불해주었다. 그 첫걸음으로 1986년에 한때 세인트 까미유의 잡화점이었던 건물을 확보하였다. 당시 그들은 지역사회를 위해 흥미로운 기획을 추진할 건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2년이 지나 그 건물은 지역사회 문화센터가 되었다.

1998년에 Groupe du Coin 은 교구회의가 매각하기 위해 내놓은 교회 사제관을 사들였다. Groupe du Coin 은 수년간 적절한 편의숙박시설을 요청해온 지역사회 내 고령자들의 욕구를 해결해주고 싶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였다. 만일 적절한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고령자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적합한 주거환경을 찾아 도심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Groupe du Coin 는 자신들의 기획을 연대협동조합 방식을 통해 실현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재정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그들은 주택협동조합까지 만들게 되었다. (각주 21) 연대협동조합이 지역사회나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수단이라고 한다면 주택협동조합의 유일한 목적은 거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협동조합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은 세인트 까미유 시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협동조합에 별도의 지역적 제한이 부과된 것은 아니다. 아스베스토스(Asbestos) 지방자치체(RCM)의 여러 소도시 거주민들은 협동조합의 활력 서비스들(animation services)을 이용하며 여러 지역에서 찾아온 사람들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의지한다. 협동조합은 Groupe du Coin 활동의 결과로 1999년 9월 17일에 설립되었고 2000년 1월에 운영을 시작하였다. La Corvee 의 설립은 오직 한사람에게만 두 협동조합의 조정자로서 종신고용을 보장하였다. 이 사람이 수행한 역할은 아주 중요하며 그녀의 공헌은 상당하다. 정부 프로그램 덕분에 4명이 추가로 수개월간 협동조합에 고용되었고 그들에게는 유익한 고용체험의 시간이 주어졌다. 각종 집수리와 개보수 작업에 노동자들을 채용하면서 지역 내 많은 사람들에게 고용기회가 주어졌다. Groupe du Coin 이 기획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들은 지속적인 고용기반을 필요로 할 것이며,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보건과 활력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협동조합에 주택협동조합을 결합시킨 것은 특히

고령자들에게 소위 La Corvee 라고 불리는 대단히 흥미롭고 존경받는 모델을 실현시켜주고 있다. 예를 들면 La Corvee는 퀘백주 공중보건협회 외에도 많은 곳으로부터 상을 받았다. 활력 서비스들(animation services)을 통해서 협동조합은 고령자들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자조능력을 증진시키며, 시민들 사이에 강력한 연대를 만들어내고 있다.

Mont Adstock: 협동조합 레크레이션 및 관광센터(a cooperative recreation and tourism centre)

Mont Adstock 은 스키, 스노우보드, inner tube sliding 과 개 썰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레크레이션 및 관광센터이다. 이 산에는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딩 이륙장 뿐만 아니라 눈길 산책로, 등산로, 관측대도 있다. 이 협동조합기업의 고객들은 주로 퀘백시 남서부 125km에 위치한 Amiante 지방자치체(RCM)의 작은도시들인 Thetford Mines, Black Lake, Disraeli 와 Adstock에서 온다. 하지만 많은 외지인들도 연습차 방문하며 자신들이 좋아하는 활동에 참가한다.

산의 기본시설들이 소멸되지 않도록 기본적 조치를 취한 뒤에 1998년 7월 6일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사실 당시 개인 소유자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고 스키장을 폐업하고 싶어했다. 몇몇 바이어들은 4중 스키리프트(quadruple chairlift)와 제설기(snow making machinery) 같은 장비들에 눈독을 들였다. 만일 거래가 성사되어 스키장의 기본 시설들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해체된다면 스키센터는 영원히 문을 닫았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인근에 있는 도시(Adstock, 주민 2400명)의 시장은 스키장 전체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본을 모아내기 위해 광범위한 캠페인을 조직하였다. 불과 2주만에 지역주민들의 결집과 지역사회 많은 조직들의 아낌없는 후원으로 미화 48만 달러가 모아졌다. 지역 자선가들도 미화 10만 달러를 기부하였다. 퀘백에서 레크레이션 분야에 자생적인 연대협동조합이 설립된 것은 이 조합이 처음이었다.

Mont Adstock 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지역의 보배로 간주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관광명소이다. 335미터 고도의 산에서는 주변 수마일이 한 눈에 들어오는데 이는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 산을 지역의 상징이라 생각하는지 설명해준다. 스키장을 살려내고 청년인구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설립은 지역 인구를 고려할 때 결코 적지 않은 35명의 고용을 유지시켜 주었다. 노동자들 가운데 대다수는 학생들이거나 일전에 복지수당 수령자들로서 그들의 고용은 귀중한 경험이요 또한 그들이 중요한 세입원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2003년 6월 17일 현재 Mont Adstock의 총 조합원 수는 411명으로 이 가운데 레저 조합원이 371명, 사업 조합원이 34명, 후원 조합원이 5명이며 노동자 조합원은 1명이다.

Domaine-Du-Roy: 재가돌봄 협동조합

이 연대협동조합은 1997년 새로운 HCSEEs(재가돌봄사회적경제기업들)의 유행을 타고 설립되었다. 1996년 정상회담에 퀘백정부가 참여한 후에 이러한 유형의 기업은 성장의 파도에 휩싸였다. 앞에서도 거론하였듯이 세계화는 정부로 하여금 불법 노동행위를 근절시킬 또다른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보건과 사회적 돌봄 분야에서 주로 고령자를 위한지속적인 서비스들이 제공되면서 주요 예산삭감은 상쇄되었다.

본 협동조합의 사업구역은 Saguenay-Lac-Saint-Jean 행정구역에 위치한 Le Domaine-Du-Roy 지방자치체이다. 본사는 퀘백시 북부 300km의 Saint-Felicien 마을에 자리하고 있다. 조합은 부문사업으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던 두 개의 비영리조직의 합병과 자원활동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설립되었다. HCSEE의 창업과 발전을 위해 고안된 여러 가지 방법들이 Domaine-Du-Roy 에게도 도움이 되었다.

지역사회서비스센터(CLSC)와 같은 지역내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효과적인 결속과 지역주민들의 대대적인 호응은 이 협동조합이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성장하게 해주었다. 직접적인 경쟁자의 부재와 서비스의 점진적인 다양화도 급속한 성장의 요인이었다. 2003년 3월 31일 현재 조합원 수는 1300명이 되었고, 연간 총 매출액은 대략 미화 110만 달러에 이르렀다. 성장둔화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높은 실업률과 고령화된 환경 속에서 본 협동조합은 이중의 역할을 수행한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준비하며 고령자들처럼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두가지 방식으로 지역사회의 웰빙에 기여하는 것 외에도 상당한 양의 불법고용을 근절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조합설립 이후 창출된 100개의 일자리는 지방자치체의 고용효과에 큰 영향을 주었다. 더 나아가 본 협동조합의 발전은 협동조합이란 개념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환기시켜주었다. 실제로 협동조합은 일전에 수많은 유사조직들이 지역에서 폐업했던 선례가 있어 일부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증거들 덕분에 협동조합은 이제 지역사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L'Eglantier: 건강식품 협동조합

최근 수년간 퀘백에서는 다른 선진국에서처럼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L'Eglantier 협동조합은 퀘백시 동쪽으로 대략 300km 떨어진 인구 3600명의 작은 마을 Saint-Pascal de Kamouraska 에 위치하고 있다. 건강식품을 주로 취급하는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생각은 지역주민들이 건강식품을 쉽게 이용하도록 하고 싶다는 어떤 구매자 그룹에서 비롯되었다. 새로운 협동조합을 추진한다는 면에서도 그

리고 Saint-Pascal이 식습관을 포함하여 오랜 전통을 고집스럽게 유지해 온 보수적인 마을이라는 면에서 이러한 시도는 대단히 모험적인 것이었다. 게다가 지역의 대다수 농민들은 산업적인 농업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는 유기농이나 건강식품이 추구하는 것과는 접근 방식이 매우 다른 것이다.

SEEs(사회적경제 기업들)를 위한 보조금, 고용 프로그램들과 자원활동가의 참여 등 다양한 노력에 힘입어 L'Eglantier는 수년 후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협동조합의 책임 하에 다양한 생산품과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그 결과 식료품점 운영 외에도 이 연대협동조합은 현재 커피숍과 작은 서점까지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건강식품 요리법, 식물성 오일, 유기농 정원 등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교육과정도 진행하고 있다.

2004년 2월 기준으로 이 협동조합은 274명의 이용자 조합원, 6명의 노동자 조합원 그리고 12명의 후원자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연간 총 매출액은 미화 267,743 달러에 이르렀다.

사회통합에 대한 긍정적 효과

사례연구들과 다른 형식의 연구들 즉 표본조사, 포커스 그룹연구, 학술 세미나 등을 진행한 결과 일반적으로 연대협동조합들은 다양한 범위에서 사회통합에 의미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기여를 하고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으니 바로 민주주의의 수준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범위로 회귀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으나 상황은 명료하지 않으며 하나 이상의 범위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구역을 확장하려는 협동조합의 경우 지역과의 관계성과 접근성 측면 모두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사회가 후원자 조합원처럼 다른 뿌리를 지닌 사람들도 구성된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수준과 유대감 모두에 영향을 주게 된다.” (Girard and Langlois, upcoming)

표 5.4 사례연구 요약

조합명(설립연도)	도시명 인구수 소재지	서비스 및 생산품	조합원 구성과 기초출자액(1구좌, 달러)
Cooperative de solidarite en a i d e d o m e s t i q u e Domaine-du-R oy (1997)	St-Felicien, 10,622명 Lake St. John	-재가돌봄서비스 -활동보조 -개인도움	2003년 3월 현재 -이용 조합원 1,182명 (10) -노동자 조합원 99명 (50) -후원 조합원 18명 (100)

Coop de solidarite en soins et services de Saint-Camille also called La Corvee (1999)	St-Camille, 440명 E a s t e r n Townships	-전문적인 대안의료이용 -교육적인 예능서비스	2005년 2월 현재 -이용 조합원 45명 (250) -노동자 조합원 2명 (250) -후원 조합원 15명 (250)
cooperative de solidarite recreotouristique du Mont Adstock (1998)	Adstock, 2,399명 Chaudiere-Appalaches	-스키,스노우보드, 눈길산책,등산,기타 -행글라이딩과 패러글라이딩	2003년 6월 현재 -이용 조합원 405명 가운데 레저 조합원 371명 (50), 비즈니스 조합원 34명 (5000 +) -노동자 조합원 1명 (1,000) -후원 조합원 5명 (10,000)
Cooperative de solidarite en alimentation s a i n e L'Eglantier du Kamouraska (1999)	St-Pascal, 3,643명 Lower St. Lawrence	-건강식품 소매점 -커피숍 -교육훈련과정	2003년 2월 현재 -이용 조합원 274명 (50) -노동자 조합원 6명 (100) -후원자 조합원 12명 (100)

자료출처: Girard and Langlois, forthcoming

지역(territory)

모든 협동조합 연구에서 지역은 1980년대 초 퀘벡주가 정의한 지방자치체 구획에 부응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단위는 주로 가톨릭 교구에 기반하였던 전통적인 구조들과는 다른 것이다. 물론 협동조합들은 자신들의 본부를 도시나 마을 어딘가 특정 지역에 두어야 한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활동이 그러한 지역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La Corvee 협동조합은 다른 마을의 주민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며 조합원 자격도 개방되어 있다. 동일한 원칙이 L'Eglantier에도 적용된다. 다른 도시의 주민들도 이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건강식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Adstock 도 마찬가지이다. 이 연대협동조합 본부와 먼거리에 사는 사람들도 소위 스키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접근성(accessibility)

다시 말하지만 연대협동조합들은 사회통합이란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연대협동조합은 자신의 이용자 조합원들로 하여금 이미 현존하거나 새롭게

시작된 서비스 또는 생산품에 대한 접근을 대단히 용이하게 해준다. 계획을 실행하기에 앞서 세인트 까미유의 La Corvee 협동조합 창립자들은 많은 주민들이 대체의학 의료인을 찾아 멀리 이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고령화와 함께 이러한 이동문제도 중요한 과제였다. 간단하게 상황을 반전시킬 결정이 이루어졌다. 점골요법, 교정치료, 침술요법과 마사지 치료와 같은 대체의학 의료인들은 현재 마을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Eglantier 처럼 연대협동조합은 신속하게 새로운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방안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고용효과(employability)

이 분야에 대한 연대협동조합의 기여도는 불분명하다. 노동조건이라는 것이 지역의 경제적 상황이나 사업분야와 무관하게 고려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Domaine-du-Roy를 포함한 HCSEEs 의 경우 이러한 현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PEFSAD의 지원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이러한 사업수행기관들은 수천명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그들 대다수는 한부모이다. 사업수행기관들은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해 법조항을 이용하였지만 이것이 전부 아니다. 교육훈련을 통해 참여자들의 기술적인 역량과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켜 내야 했다. 이러한 지원은 참여자들이 이전에 고립되어 있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Girard and Langlois, upcoming) 조사연구 상의 어려움 때문에 지배구조의 자율성 문제와 같은 기관의 세부적인 운영체계까지 연구할 수는 없었다. 지배구조의 자율성 문제는 고용에 관한 대단히 중요한 구성요건이다. 이 문제는 민주주의의 수준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민주주의 수준(degree of democracy)

La Corvee(각주 22)를 제외하면 우리가 연구조사하고 그룹토론에 참여시킨 기관들 중 어느 곳도 자기 조직의 민주주의 수준을 특별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그 중 한 협동조합은 전통적인 대의민주주의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협동조합의 경우도 조합원의 다양성(연령, 성비,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또 다른 곳은 자신의 경영구조 안에 노동자 조합원의 자리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Mont Adstock의 사례를 보면 노동자 조합원의 가입비가 미화 1000달러로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어째서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다. 사실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는 단기간 계절노동자들에게 미화 1000

달리는 대단히 큰돈이다. “노동자들의 저조한 조합원 참가는 곧바로 민주주의 수준에 영향을 준다. 이사회를 이루고 기타 민주적 활동에 참여할 조합원 구성이 매우 제한되기 때문이다.” (Girard and Langlois, upcoming)

일반적으로 연대협동조합들은 명료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정당한 선택을 하기 위해 심도깊은 토론을 진행하는 민주적 접근방식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Levesque, De Bortoli and Girard, 2004)

유대감(connectedness)

Results for this remaining aspect of the social cohesion study are very positive, both before and after creation of solidarity cooperatives. 연대협동조합의 설립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동원을 필요로 한다. Mont Adstock 의 사례는 불과 몇 주 만에 미화 50만 달러에 이르는 자본을 동원해낸 역량이 인상 깊게 보여 진다. 해당 지역의 인구밀도가 대단히 낮다는 것도 인상적이다. 성장하기 위해서 연대협동조합들은 개인과 조직들의 네트워크 구성을 촉진한다. 특별히 기관의 대표성을 지닌 후원자 조합원들은 이미 잘 조직되어 있는 관계망에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동시에 연대협동조합들을 지도하고 조정해주는 사람들은 종종 이사회, 원탁회의, 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그룹에 참여하고 있다. (각주 23)

보건

연대협동조합들은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설립되었다. 많은 경우에 연대협동조합들은 때로는 자신들이 선택한 사업활동 지역의 새로운 선거구민이도 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결합시켜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다. 또한 그들이 조직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방식도 개혁적이다.

보건서비스협동조합들(HCC)은 특별히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그들의 등장은 퀘벡주에서 작은 혁명을 이끌어냈고 앞으로 수년 내에 대단히 성장하리가 기대된다.(각주 24) 보건서비스협동조합은 1990년대 중반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고 2008년에는 30여개가 되었다. 초기에는 이용자들만의 협동조합모델이 유일한 방식이었으나 1997년 6월에 연대협동조합 모델의 등장은 이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졌다. 심지어 초기에 설립된 보건서비스협동조합들 중에도 기회가 오자 법인 정관을 바꾸어 연대협동조합이 된 곳이 많다. 오늘날 보건서비스협동조합의 95% 정도는 연대협동조합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보건협동조합은 다양한 지역에서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설립되었다. 보건협동조합에 사람들이 모여든 주된 이유는 지역사회에 의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얼핏 보면 거시적 차원에서 의사분포는 지역별로 적절하게 보인다. 하지만 미시적 관

점에서 지역을 살펴보면 좀더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인데 도심지역에 의사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설명해주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도심지역에는 의료기관에 의해 소유 관리되는 대규모의 약국들을 포함해 거대한 상업적 연계망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연계망이 예를 들면 개업의사들에게 광고나 환자예약관리 등에 대해 신경쓰지 않고 자기 나름의 시간관리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매력적인 일괄거래상품을 제시하기도 한다. (Assoumou Ndong, Girard, Menard, and Veniza 2005) 의사가 없는 작은 마을에 사는 시민들은 때때로 가까운 병원에 가기위해 한 시간씩 운전을 해야한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은 기본적인 대중교통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다.

1995년 St-Etienne-des-Gres의 시민들이 퀘백 최초의 보건협동조합을 설립했을 때에도 병원이동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보건의료협동조합들이 설립되고 운영되는 방식은 간단하다.

- 우선 리더그룹들이 의료접근성 문제를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리더그룹에는 지방 공무원, 의회의원 또는 지역 데잘딩 기금(caisse Desjardins)의 실무책임자들이 참가하며, 간혹 공중보건분야의 대표자들이 참여하기도 한다.

- 다음으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고용하게 된다. 여러 자원을 동원하여 조사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는데 caisse populaire의 기부도 그중 하나이다.

- 의사들을 결합시켜낼 최상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과제이다. 의사들은 부족하지만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도시에서 개업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좋아할 흥미로운 제안을 준비하고 그들과 소통할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대단한 상상력을 요구한다.

- 보통 타당성 조사가 긍정적이고 의사수급 또한 성공적이라면 협동조합에 함께 참여할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3000명에서 4000명 정도의 주민들이 사는 마을에 주민의 절반 정도가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평균적이다. 더 나아가 의사의 참가는 약사나 물리치료사와 같은 다른 보건의료전문가들의 참여도 대단히 쉽게 해준다.

보건의료협동조합들에서 의사들은 사무공간을 임대하는 독립사업자이며 공중보건체계에 기반한 서비스 수수료를 지불받는다.

보건협동조합의 발전과정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이러한 조직들이 많은 의료기관을 관리하고 있는 거대한 상업적 체인방식과 비교해도 한발 앞선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Girard,2007)

● 시민의 성찰과 결속에 긍정적 효과

시민적 자각과 결합력은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부여한다. 결핍되거나 악화된 상태로 또는 패배주의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기보다 사람들은 충분한 힘을 모아내기만 하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 토론과 민주주의의 공간

보건협동조합들은 서로 나누고, 계획에 대해 토론하고 정리하며, 전략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설립되었다.

● 이윤보다는 서비스 이용자들을 중심에 둔 기획

협동조합들은 서비스 이용에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경제적 역량이 무시될 수 는 없겠지만 이윤은 사회적인 용어로 평가된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 보다 효과적인 의사들과의 관계형성의 토대

대부분의 보건의료협동조합들은 연대협동조합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어떤 협동조합에는 의사들이 후원자 조합원으로 참여하는데 동의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서 그들은 임차인의 자격을 버리고 협동조합적 민주주의의 과정에 결합하게 된다.

● 지역사회를 혁신으로 이끈 많은 기획들

보건협동조합의 사업계획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조직들이 저마다의 지역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들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보건협동조합과 연계한 혁신사례는 대단히 다양할 수 있다. 의료시설에 고령자 주거를 연계하는 것, 대체의학 의료인들을 초빙하는 것, 취약계층을 위한 예방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2007년 말과 2008년 초에 보건분야의 두 연대협동조합이 각별히 그러한 혁신의 전면에 있었다.

● 셀부룩대학 보건협동조합은 세계 최초로 대학에 설립된 보건협동조직이다. 설립 목표는 정보제공과 교육, 건강체크 등을 통해 학생들과 직원들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증진하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학생들에게 보건협동조합의 모델을 소개하는 차원에서도 의학부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성장할 것이다.

● Robert-Cliche 지방자치체 보건의료협동조합의 목적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시민들에게 통합적인 예약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의 모든 의료기관을 연계하는 것이

다. 다른 하나는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일본의 반모임이 실천해온 혁신적인 예방과 보건 프로그램을 적용시켜내는 것이다. (Girard and Restakis, 2008)

결론과 조언

2007년 10월 연대협동조합에 관한 포럼이 1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었고 그 자리에서 그들의 장단점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목적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150여명의 참여자들은 다종다양한 환경에 뿌리를 두고 있었으며 개발책임자들과 이사회 구성원 및 실무책임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토론 과정에서 도출된 핵심의제들은 아래와 같다. (IRECUS, 2008)

- 지역사회에 필요에 부응한다는 면에서 연대협동조합들은 지속가능한 지역환경에 필수적이다. 그들은 근린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고 있다.
- 연대협동조합은 시민들을 결속시킨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내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 시민들의 결속은 협동조합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느끼게 하여 근린서비스들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 연대협동조합의 주요 도전과제 중 하나는 사회통합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책임감을 증진시켜내는 것이다.

하지만 연대협동조합들도 몇가지 단점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노동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Cliche, 2008) 보다 근본적으로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에서도 드러났듯이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다양한 이해를 조정하고 숙의민주주의를 실천할 것인가 라는 주제 하에 관리자들과 이사회 구성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다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조직의 경영은 위기상황을 타개해나가는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단일조합원구성의 협동조합이나 개인사업체에 적용되던 관리기법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면 실패로 끝나게 된다.

사회적인 역할과 경제적 활동을 교차적용하면서 연대협동조합들은 다양한 유형의 지역사회에서 역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들은 지속적인 사회혁신을 보장하는 핵심요소가 될 수 있다. Mont Adstock 과 La Corvee를 비교연구해본 결과 특별히 세가지 측면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Langlois and Girard, 2006)

- 창립자들의 오랜 임기와 관여

- 정보의 보급뿐만 아니라 연대협동조합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고유한 특성과 가치에 대한 고려

- 그들 대다수가 영향을 미치는 혁신에 대한 인정

연대협동조합들이 소위 퀘백형 발전모델이라 것 속에 묻어들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Bourque, 2000) 그것은 공공부문과 영리기업 그리고 집단소유기업들의 혼합형 모델이다. 더구나 잘 구성된 단일조합원 협동조합들 가운데 일부도 연대협동조합으로의 변화를 선택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후원자 조합원 범주를 첨가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서 이용자나 노동자 조합원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전체 활동영역으로 그러한 범주를 끌어안으면서 관계성을 강화하였다.

조언(Recommendation)

- 공공정책이 사회통합과 지역발전에 관련해 결단을 내리면서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 접근방식과 연대협동조합 모델에 대해서 보다 많은 사유가 필요하게 되었다.

- 조직혁신 프로젝트들에 의하면 공공의 이익은 공공부문과 민간시장 협력에 지나치게 집중되기 보다 공공부문과 협동조합의 협력이란 개념을 증진하는 것이 이로울 것이다.

-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들의 역할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들의 운영과 발전에 대하여 보다 많은 지식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초기의 협력관계가 후원자 조합원을 포함한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우애관계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사회적 건강의 결정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의 보살핌보다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관장하고 있다는 자존감과 성취감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특히 외딴 마을에서 개인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연대협동조합과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들의 특별한 공헌에 대해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

-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란 형태는 OECD 가맹국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새로운 모델이기 때문에 다양한 지표에 따라 비교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이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 또한 공공서비스를 전달할 대안적인 방법들의 발전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그리고 필요한 자원(시장, 보조금, 자원활동)을 어떻게 결합시켜내는지에 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 각 주 >

1. 생산자협동조합 가운데 농업협동조합 통합연맹인 La Federee 는 미화 40억 달러라는 연간 총매출액으로 차별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가 퀘백 협동조합 분야에서 새로운 급진적 변화를 감추지 못한다. 오늘날 두 개의 신설협동조합 가운데 하나는 다중조합원 협동조합이거나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MSC)이다. 퀘백에서는 연대협동조합이라 말하여진다. 소비자협동조합 가운데 유명한 사례는 데잘딩 금융서비스 협동조합 네트워크이다. 그들은 캐나다 달러로 1500억 달러의 어마어마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2008년 7월 기준으로 CAN 1 = USD 0.98 , EUR 0.62)

2. 프랑스어 사용자는 북아메리카 인구의 2% 정도이다. 퀘백 연구자들이 영어로 출간하지 않는다면 언어장벽으로 인해 북아메리카 다른 지역 연구자들의 경우 퀘백 협동조합 사례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경험들은 다소 느리게 전파되고 있다.

3. www.montadstock.com

4. www.coopsa.org

5. 로버트 오언(1771-1858)은 웨일의 사회개혁가였다. 그는 공업도시의 갑작스런 출현으로 인간과 기계 사이에 발생한 경쟁원리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개별 인간의 존엄성이란 견지에서 인간에게 적합한 규모의 공동체들(대략 1200여명 규모)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6. 오늘날 이러한 형태의 협동조합들은 모두 구급차 협동조합이라 표현하기보다 응급의료지원 협동조합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응급의료지원 협동조합이 여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업무를 잘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7. 퀘백 협동조합과 공제위원회(Quebec Cooperative and Mutual Council)는 협동조합들과 공제조직들의 보호막이자 공개토론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 조직은 1939년에 법인단체가 되었다. 2006년에 이르기까지 Conseil de la cooperation du Quebec (CCQ)라고 알려져 있다. www.coopquebec.coop/site.asp?page=element&nIDElement=2282.

8. 프랑스어만 지원. www.mdeie.gouv.qc.ca/index.php?id=2206

9. 그들의 목적은 간단하다. 지역 차원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새로운 협동조합들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잘 성장한 협동조합 조직들 간에 상호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다.

10. 이러한 연구센터는 2001년 Centre Desjardins en gestion des cooperatives de services financiers 에 의해 복원되었다.

<http://web.hec.ca:8088/centredesjardins>.

11. 이들은 보건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활동하는 공공병원들이다. 2005년 퀘벡에서는 대략 60개의 조직들이 다른 공중보건시설들과 함께 소위 ‘보건과 사회봉사센터’라 불리는 새로운 구조로 통합되었다.

12. 보고서의 작성자는 1996년에 수개월 동안 이 클러스터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이었다. 다른 관점에서 정상회담 말미에 이 클러스터의 리더그룹은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의 협력을 위한 이 새로운 공개토론의 장을 이용하여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몇 년 뒤 샹티에가 합법적인 NPO로 등록하였다. 시간이 지나 이 조직은 수많은 분야에서 사회적경제 계획의 강력한 추진체가 되었다. 낸시 님탐은 클러스터의 초대 의장이 되었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www.chantier.qc.ca/

13. 법안파일은 무료로 받을 수 있음.

www2.publicationsduquebec.gouv.qc.ca/dynamicSearch/telecharge.php?type=2&file=/C_67_2/C67_2_A.html

14. 이 부분은 주로 퀘벡 주정부 협동조합 담당부서의 Jocelyne Chagnon이 사회적협동조합(SC)에 관해 최근 작성한 발표문과 보고서에 기초하고 있다.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여기에서 인용한 자료에서는 금융서비스협동조합들(Desjardins)을 제외한다.

15. 이 부분은 주로 Girard 와 Langlois에게 영감을 얻었다. (출판예정)

16. 수많은 서류검토, 회의, 전문저널의 기고문들을 통해서 연구작업은 두권의 책을

발행하였다. (Fairbairn and Russell, 2004 & Fairbairn and Russell, upcoming)
<http://socialcohesion.coop>.

17. 이 장의 저자가 이 연구의 조정자이다.

18. 사회통합과 데잘딩 기금에 관한 이러한 연구작업은 사례연구의 형태로 다양한 출판물을 남겼다. 종합보고서는 2001년에 출간되었다. (Malo and al.2001)

19. 이러한 협동조합의 조력자들과 이사들의 긴밀한 협력은 높게 평가되었다.

20. 모든 사례들은 프랑스어로 정리되었는데 CRISES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내려받을 수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La Corvee의 사례는 영어로 완전하게 번역되어 있으며 협동조합연구센터(USAK)에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www.usaskstudies.coop/pdf-files/St.-Camille.pdf.

21. 최근까지 퀘백의 주택협동조합들은 이용자 협동조합의 형태로만 설립되어왔다.

22. 이 경우에는 해당 협동조합의 이사들이 유사조직들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23. 재가돌봄서비스협동조합 분야에서 제도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해당 조직들의 이사들이 각종 위원회나 다른 분야의 보건과 사회서비스 조직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24. 이 순간에도 캐나다의 극히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보건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퀘백만의 독특한 현상으로 보인다. 다른 지방에서 건강문제를 가진 시민들은 비영리조직의 법적틀을 이용한 지역사회보건센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캐나다 퀘벡 방문 보고

- 함께일하는재단 (이은애, 최혁진, 박찬임, 이광택, 조영복외)

1. 사회적 경제의 3개의 축: 퀘벡의 경험(1996~2007)⁴⁾

퀘벡의 사회적 경제를 이해하는 큰 축은 1) 사회적기업 2) 사회적기업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적 환경 3) 그리고 그것을 이끄는 리더십이다. 퀘벡에서의 사회적 경제는 지난 25년간 발전해 왔으며, 이는 다양한 지역기반의 이니셔티브, 투자 기관, 지역사회 토지 트러스트(community land trusts), 협동기업 (collective enterprise) 등을 포함한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사회적 경제의 의미가 수익을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제3섹터 등으로 축소해석 되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연대 경제(solidarity economy)로 해석되어 시장 활동을 하지 않는 비공식 섹터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렇게 볼 때, 사회적 경제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사회적 경제가 여러 연구자, 정책 입안자로부터 재조명되고 있는 이유는 시장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은 단순히 공공서비스 조달을 위한 대체물이 되어선 안 되며 이전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나, 새로운 욕구에 대응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퀘벡은 사회적 경제 발전에 필요한 공공 재정지원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 및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정책을 입안할 때, 사회적 경제 활동가와 함께 작업하는 것의 필요성을 깨달아, 시민사회와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사회적 경제의 발전은 정부의 부담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 및 중재 형태를 변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일반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와 재화를 생산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의 증가를 나타내며, 이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한다. 퀘벡지역은 협동조합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Mouvement Desjardin’과 같은 세계적인 협동조합운동에 뿌리를 둔 금융기관을 낳았다. 상품을 생산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새로운 세대는 다양한 분야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은 협동조합의 법적 형태를 갖고 있으며,

4) Marguerite Mendell교수가 쓴 The Three Pillars of the Social Economy: The Quebec Experience (1996-2007)를 축약 정리한 2009 기획연수를 위한 자료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문을 참조하십시오.

공정무역이나 윤리적 소비와 같은 주제로 청년들에게 사회적 경제를 매혹적으로 만든다.

퀘벡지역의 사회적경제의 다원성: 사회적경제의 분류

시장과의 관계	욕구 및 기획	사회적 경제 (사회적 욕구에 부응)	사회적 경제 (새로운 기획에 부응)
비(非)시장경제원리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 (사회적 개발)		예: 노숙자를 위한 보호소 주간보호 센터 협동형 부엌 (Collective kitchens) 학교 중퇴자 재통합	예: 주간 보호 센터 산후 조리 센터 환경 박물관
시장경제원리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 (경제 개발)		예: 직업훈련 사회 재 적응 훈련 센터 연대 또는 사회 적 금융 (다양한 금융상품) 문화	예: 노동자 협동조합 (Worker cooperatives) 재활용 (환경) 음식 (캐터링) 문화

출처: Lévesque and Mendell 재정리, 1999.

이러한 다원성과 함께, 퀘벡의 사회적 경제 발전은 혁신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다. 퀘벡은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적 접근법을 갖추고 있으며, 취약한 기업이나 섹터를 위한 협의 능력을 배양하고, 정책을 형성하는 새로운 방식을 갖추고 있다. 이 새로운 방식이란 다양한 구성원이 사회적 경제에 직접 관여하고, 섹터간 대화를 통해 목표를 공유할 수 있는 매개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의 혁신적인 이니셔티브가 반드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고안되는 것이 아니며, 지역사회 내의 사회, 경제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함일 수도 있다고 정부는 말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관심사는 다양한 정부 부처 및 구조와 연계성을 갖고 조율된 분권을 수행하는 것이다. Jerzy Hausner는 이를 거버넌스의 유연성 (flexible modes of governance)이라고 한다. 또한 공익을 위해 사회적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 측면에서 볼 때 세수를 증가시키고, 사회적 웰빙을 늘린다는 점에서 장점이 많다.

퀘벡지역의 사회적 경제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발전은 1996년 퀘벡의 주지사, Lucein Bouchard가 ‘퀘벡의 경제, 사회 미래에 관한 정상회담 (Summit on the Economic and Social Future of Quebec)’에 지역사회 단체와 사회 운동가들을 초청하면서 부터이다. ‘Chantier de l'économie(샹티에)’는 여기에 초청된 세 특별전문위원회 중 하나로 Bouchard 주정부(1996~2001)가 직면한 재정적 위기와 실업적 위기를 해결할 전략을 제안하였다.

‘공세르따시옹 (concertation, 협동을 의미<프랑스, 정치용어>)’이란 단어는 퀘벡의 주요 3섹터인 기업, 정부, 노조의 삼자 협의 및 대화를 의미하는데, 이는 퀘벡의 정치문화 전반에 자리잡고 있다.

퀘벡 정부는 1960년 조용한 혁명(Quiet Revolution) 이후부터 경제 발전 전략을 수립해 왔으며, 퀘벡의 노동자 중 거의 40%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고, 노조는 공공 섹터뿐 만 아니라 다양한 섹터에서 중요한 협상 대상이다.

“발달기 developmental state”로 불리는 196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퀘벡주 정부 소유의 거대 기업이 많이 생겨났다.

“협력기 partnership state”는 “Quebec, Inc.”라는 용어로 설명될 수 있는데, 1980년부터, 이 시기는 퀘벡경제에 우선권을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혁신적인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퀘벡정부와 노동계, 기업의 관계를 중요시 하였다. 경제를 부양하고 조정하기 위한 사회적 조율 속에서, 민간 기업은 강력한 제 3의 파트너로 작용했으며, 이러한 조율은 퀘벡과 다른 지역을 구분 짓는 특징이 되었다.

1996년에 4번 째 협의 파트너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기구이다. 최근, 퀘벡문화 내의 공세르따시옹의 정착이 다시 한 번 검증되었는데, 이는 퀘벡주를 현대화 하려는 노력에서 공세르따시옹을 파괴하려는 주 정부의 노력이 모든 사회부문에서 저항이 쏟아져 나와 실패로 점철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퀘벡의 사회적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두 개의 이니셔티브가 있다.

첫 번째 기관은 ‘Fonds de solidarité de des travailleurs’라는 1998년 설립된 노동자 연대 펀드(Workers Solidarity Fund)이다. 이 기관은 퀘벡 노동자 연맹(Quebec Federation of Labour)의 회원과 일반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연금 펀드이다. Fonds는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업과 섹터에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역량을 갖고 퀘벡의 경제 발전에서의 노동운동이 갖는 중요한 역할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1983년 Fonds의 설립은 지방/연방 정부의 입법을 필요로 하였다. 또한 투자자(subscriber)를 모집하기 위한 일반적 범위의 재정적 인센티브가 마련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 연대 펀드의 금융성과에 집중하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노동운동이 경제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퀘벡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노동 연맹인 ‘Confédération des syndicats nationaux (CSN)’이 1996년 설립한 노동 연대 펀드인 FondAction이 있다.

다양한 이유에서 1983년 the Fonds de solidarité의 발전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 째, 이 기관은 퀘벡의 낙후지역에서, 지역사회 경제개발기업 (CDEC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s)과 거의 같은 시점에 생성되었다. 1980년대는 시민사회를 위한 전환점으로 대변된다. 지역사회기관과 시민운동이 함께 경제위기에 심한 타격을 받은 지역사회 내에서 재활성화 전략을 이행하여 경제 위기에 대응하였고, 이를 통해 퀘벡주 경제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기관들은 자신의 역할을 사회적 중재에서 경제적 중재로 변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경험은 오늘날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고 있는 정치적 위상을 만들었다. 확실한 것은, 1980년대의 이와 같은 활동이 노동 운동과 지역사회 활동가를 위한 전략적 재 포지셔닝의 기반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경제 위기 동안 이들의 직접적인 참여는 지역사회 내에서, 그리고 더 큰 수준에서 시민사회가 맡게 될 미래의 역할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시민사회 활동요소가 지역적 노력에 치우쳐 있지만, CDEC는 효과적인 재활성화 전략 개발을 위한 다원적 이해관계자들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실마리가 되었다. 게다가, 지역사회 활동가들은 인접해 있는 기업과, 노동운동, 사회운동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역사회기반의 중간기관의 설립을 지원하는 3계층의 정부 - 연방, 주, 지방-를 움직였다. 이 후, CDEC는 1998년에 주 전역에 나타난 지방 개발 센터 (CLDs)의 설립을 위한 모델이 되었다. 지방 중개기관의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정부는 핵심 활동인자에 대한 이러한 즉각적 접근을 통해 더 효율 적으로 일할 수 있었다.

CDEC는 거버넌스의 유연성 (flexible modes of governance)의 초기 예였으며, 공동 정책 기획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이들은 퀘벡의 정치문화와 제도적 혁신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이러한 영향으로 혜택을 받은 사회적 경제의 혁명과 사회적 경제를 뿌리내리기 위한 제도 확립의 중요성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사회적 경제의 유산은 이러한 경험과 퀘벡의 협동조합운동의 장구한 역사에 있다. 사회적 경제에 속한 여러 기관과 섹터로서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협동한다. 이러한 여러 단위를 이끄는 리더쉽은 의견을 모으고 그것을 추진할 추진체를 설립하고 진행하는 데 필수적일 뿐 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운동을 설립하는 데 필수적이 되었다. 오늘 날 퀘벡지역의 사회적 경제의 리더가 이러한 선 경험의 산물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Chantier de l'économie sociale: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

1996년 사회경제 정상회의에서 Bouchard 정부는 민간섹터와 시민사회에게 각각 퀘벡경제 재활성화 전략을 요구하였다. 2년간 20,000개의 일자리를 창출 요구를 받은Chantier de l'économie sociale는 그 이상의 일을 했다. 가장 큰 도전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의였다. 많은 비판과 반대가 있었으나 현재는 정부와 비판자들로부터도 샹티에가 주창한 정의가 받아들여지고 있다.

Chantier de l'économie sociale 가 채택한 사회적 경제의 정의 (1996)

전체적으로 조망해 볼 때, 사회적 경제는 다음 원리와 운영원칙으로 조직된 협동적 기업정신(collective entrepreneurship)으로부터 기인한 일련의 활동과 기관을 지칭한다.

- 1)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의 목적은 재정적 이윤 창출 보다는 지역사회나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을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함이다.
 - 2) 사회적 경제는 **정부와 어느정도 거리를 두고** 운영된다.
 - 3) 사회적 경제는 그것이 정한 방식이나 사업을 하는 방식을 통해 모든 사용자와 노동자를 참여시키는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지지한다.
 - 4) 사회적 경제는 **개인성을 존중하며 생산된 잉여분 및 수익을 자본소유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지양한다.
 - 5) 사회적 경제는 **참여와 개인 및 집단의 권익신장 원칙**에 활동기반을 둔다.
- 그러므로 사회적 경제는 모든 협동조합(cooperative)과 상호협력운동(mutual movements) 및 연합(associations)을 아우른다. **사회적 경제는 인간과 지역사회의 욕구에 부응하는 모든 부문에서** 개발될 수 있다.
-

출처: Chantier de l'économie sociale

1996년 상티에의 초기 작업은 그 정책 수단에 반영되었다. 주간보호, 재가간병, 환경과 같은 사회적 경제에 떠오르는 부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생겨났으며, 노동시장 훈련과 비즈니스 개발 등을 위한 펀드가 생겼다. 퀘벡 정부는 *Réseau d'investissement social du Québec (RISQ)*와 같이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출과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투자 펀드를 만들어 민간섹터의 기여를 극대화 시켰다. 1996년 정상회의에서 상티에에 주어졌던 2년간의 의무는 광범위하였으며, 특정 섹터에 국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티에 스스로가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었는데, 이는 상티에가 대안적 경제개발 전략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경제활동을 하는 다양한 섹터에서 공동소유의식(collective ownership)을 장려하는 계기가 되었다. 필자는 상티에가 채택한 이러한 전략이 경제 민주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집단경영회사(collective enterprise)에 중요한 원천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업이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지배되도록 하는 개발 도구의 조율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1998년 상티에는 회원들을 대표해서 정부와 협상이 가능한 비영리 기관으로 변화했다. 또한 사회적 경제가 부처 간 이기주의 없이, 수평적 정책 환경에서 진행 되도록 내각 상임위원회 (Executive Committee of Cabinet)에서 맡아 초기 작업을 진행한 것은 사회적 경제의 발달과 정치적 역량을 상승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 후 2001년 사회적 경제 특별위원회(special office for the social

economy)가 재정경제개발부(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에 설립되어, 사회적 경제를 조정할 수 있는 수평적 정치 체계로 자리 잡았다. 2003년 정부가 바뀌면서 사회적경제가 경제개발혁신통상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Innovation and Trade; MDEIE)로 이관되면서 많은 난관을 겪었다. 결국 주지사는 사회적 경제를 수평적이고 부처 간을 넘나드는 곳에서 관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여 지방자치 및 지역사회부(Ministry of Municipal and Regional Affairs)로 옮겨졌다. 이러한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상티에에 대한 정부의 기금지원은 끊이지 않고 계속 되었다.

상티에는 사회적 경제가 민간이나 공공섹터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활동임을 인식시키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화와 정치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상티에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탁월하고 조율된 개발 전략을 만들어내는 역량이 있으며, 상티에에게 이러한 힘을 발휘할 위치가 부여된 것은 우연도 아니고, 환경적 요건 때문도 아니다. 이는 지속적인 제도 혁신과 사회변화의 모색과, 다양한 도전과제에 부응하는 활동의 결과물이다.

다음의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상티에는 복합적이고 혁신적인 조직구조를 만들어 냈다. 상티에는 금융, 직업훈련 및 노동시장 연구개발 분야에서 자체 부서와 협력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지역개발 조직과 운동, 그리고 각종 산업부문을 한 데 뒤섞은 독특한 조직문화를 갖고 있다. 이중 연구협력은 매우 중요한 분야인데, 상티에는 대학과 연계한 혁신적인 연구 협력을 통해 사회적 경제에 관한 지식의 보급과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퀘벡 및 다른 대다수 지역의 사회적 경제가 직면한 문제는 대부분 제도적 문제이다.

법, 회계규정, 집단경영회사의 가치 및 부가가치의 적절한 평가와 측정 도구의 부재 등이다. 비영리 기관에 요구되는 새로운 경제적 역할은 시급히 새로운 법의 필요를 말해 주고 있다. 그 새로운 법이란 이러한 기관이 투자자원의 접근 가능성을 갖고 비즈니스기관으로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티에는 퀘벡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세부정보를 포함한 포털사이트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간 거래 (business to business)"와 같은 기업의 내부거래 시장을 생성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증 중인 마케팅 전략으로는 사회책임소비, 사회적경제제품에 대한 라벨링, 박람회 등이 있다. 퀘벡지역의 대학들은 사회적 경제에서 떠오르는 새로운 분야의 새로운 직업과 전문성을 교육하는 인증과정과 학위과정을 만들고 있다. 연대 협동조합과 같은 제도적 혁신을 통하여 협동조합 모델을 더 넓은 범위로 확장시키고 있다.

상티에는 수직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들의 수평적 네트워크이다. 이러한 구조는 다른 지역의 많은 사회적 경제가 갖고 있는 복잡성과 분절화를 현저히 줄여준다. 상티에는 힘있는 대표적 정치기관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시민사회와 운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퀘벡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 상티에는 ‘지역 거점’ 설립을 강조하는데, 지역 ‘상티에’는 지역확동가들이 직접 실행기관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분권화된 민주적 운영원리(distributed democratic governance)를 강화하고, 동시에 지역 특수성에 적합한 기획방식을 유도한다.

현재 퀘벡에서는 정부와 협상하는 능력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정책 입안과정은 변화 중에 있다. Fonds 와 CDEC로 시작해 지난 25년 넘게 채택된 다양한 법은 시민사회가 제안한 것이었다. 사회적 경제를 위한 정책 혁신의 지난 10년은 "함께 구축하는 과정(process of co-construction)"으로 설명된다. 정부는 정책형성과정에서 이렇게 함께하는 과정의 이점을 깨달았다. 상티에는 힘있는 협상파트너이다. 사회적 경제 구조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이들을 대표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티에의 역량은 사회적 경제의 정치적 역량을 현격히 증가시켰다. 오늘날 상티에는 퀘벡정부의 주요 사회 경제적 이슈의 정책적 논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동등하게 대우받는다. 상티에의 전문성은 노동시장 정책에서 부터 보건 개혁, 연간예산 우선순위설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집합적 참여에서 나온 힘은 개별섹터가 상티에의 지원을 통해 그들을 대표하여 협상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는 개별 섹터의 역량을 증가 시킨다.

이니셔티브와 혁신

사회적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는 양질의 지속 가능한 고용을 실현하는 것이다. 다른 여러 부문에서도 노동조건의 향상이 있었지만 사회적경제에서 노동시장에 관한 분과 위원회 (CSMO; sectoral committee on the labour market in the social economy)의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만족을 느끼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일하고 있는 기업의 목적과 가치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의 질 향상에 어려움이 있는 사회적 경제 분야도 있는데, 이 분야가 바로 재가간병 분야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퀘벡에서는 사회적 경제의 정의가 1996년 명확히 기술되었다. 사회적 경제는 사람들의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일자리이다.

재가간병서비스는 사회에서 떠오르고 있는 시급한 욕구에 부응하며, 특히 노인들에게는 더 절실하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간병서비스는 과소평가되고 있으며, 전문적 법규가 없다. 낮은 임금과 낙후한 노동 조건은 재가간병의 전문성을 떨어뜨린다. 이처럼 간병의 질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취약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경제 노동시장에 관한 분과 위원회(CSMO)는 상티에, 2개의 재가간병 사회적 경제 기업의 네트워크와, 노동 운동계, 교육 · 보건 · 사회서비스부를 움직임으로써 재가간병을 전문화하는

성공적 이니셔티브를 주창하였다. 이러한 식의 수평적 부처를 넘나드는 통합적 전략의 예를 보여준다.

연대 금융 *solidarity finance*

1996년 전통적 금융기관과 차별화 되는 적절한 투자 요건을 갖춘 사회적 경제를 위한 금융기관이 필요하였다. 전통적 금융기관은 사회적 경제 기업의 높은 위험성을 받아들이 수 없거나, 이들에 의해 돌아오는 사회적 효과를 고려하지 못했다. 퀘벡지역에서 사회적 경제가 사용 가능한 주요 금융 상품은 사채(debt instruments)나, 중단기 대출이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기관을 통한 대출 가능성은 다양한 기업의 성장과 축적을 제한한다. 단기 대출에서부터 장기 대출까지 다양한 재정상품이 필요하다. 집합적 회사는 주식 발행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취하는 방식이 고안되어야 했다.

2007년에 샹티에는 '*Fiducie du Chantier de l'économie sociale(FCES)*'를 출범하여, 5,380만 달러의 상환유예자본(patient capital) 또는 유사 주식 기금을 통해 집합적 기업이 장기 계획에 착수하고, 부동산에 투자하며, 빚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새로운 금융상품은 무담보 회사채의 형식이며, 15년의 대출 기간 후에 상환하도록 한다. 이는 샹티에와 퀘벡의 사회적 경제의 성과 중 하나로, 다른 부문(actor)과 파트너십으로 개혁하는 퀘벡의 사회적경제의 강점의 또 하나의 예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점인 초기에, 연방정부로부터 기초 자금을 받았고, 이는 추가적인 펀드를 끌어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다른 투자자를 끌어올 수 있도록 하였다.

오늘날 Fiducie는 혁신적이고 중요한 재정 중간지원기관이다. 초기 연방정부 보조금에 더해, Fiducie의 자본화는 두 개의 노동 연대 펀드에 의한 상당한 투자를 포함한다[예, *Fonds de solidarité* (\$12 million), *FondAction* (\$8 million), 퀘벡정부 (\$10 million)]. 짧은 기간 동안에 Fiducie는 6,200만 달러를 19개 프로젝트에 투자하였으며(2008년 9월 기준), 많은 새로운 투자를 시작하고 있다. Fiducie는 2차 금융시장의 생성을 모색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연대 금융 교환을 생각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다시 한 번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발족 하는데 열쇠는 정부의 역할이었지만, 해당 이니셔티브의 개발과 역동을 만들어내는 것은 퀘벡의 사회적 경제에 맞는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금융시장의 혁신을 연구해온 시민사회의 일인 것을 볼 수 있다. 정부가 채택한 정책은 단기에 종료되었으나, 이러한 정부의 초기지원은 이 후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데 크나큰 역할을 하였다. 퀘벡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또 하나의 함께하는 공공정책(co-construction of public policy)의 예가 된다.

Fiducie의 역할은 투자 자본 풀을 형성하는 2차 시장을 조성하거나, 기업의 장기 자본 수요에 대응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상티에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세부 정보와 분석을 제공하는 일에 더해 사회적기업의 지도를 그리는 일뿐 만 아니라, Fiducie의 잠재고객을 찾기 위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예측자료 제작을 함께 진행하였다. Fiducie는 두 개의 하부구조가 있는데, 하나는 잠재적 투자자에게 다가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잠재적 투자처를 찾는 것이다. 이 예측자료(observatory)에는 해당 기업이 위치한 지역의 프로파일을 포함한 유용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조사 시에는 지역사회와 욕구 그리고 잠재성과 밀착한 퀘벡 전역의 지역개발센터(CLDs)와 함께 작업한다. RISQ를 포함한 퀘벡에 존재하는 많은 연대 금융기관이 1997년 상티에에 의해 설립되었다. 그들은 모두 7억5천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해 왔다. 이들 기관은 최근 그들의 역량을 늘리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효율적 자금흐름을 위해, 퀘벡의 금융섹터에서 그들의 프로파일을 늘리기 위해, 연대금융섹터를 연합하고 생성할 필요를 견지해왔다.

사회적 경제에 투자된 금액 (1996년 이후)

년도	투자액
1996	27 800 000,00 \$
1997	20 049 998,00 \$
1998	56 113 321,00 \$
1999	52 312 804,00 \$
2000	61 246 758,10 \$
2001	82 535 643,41 \$
2002	90 596 730,00 \$
2003	113 127 492,76 \$
2004	136 381 535,00 \$
2005	114 999 693,00 \$
전체	755 163 975,27 \$

Research Partnership on Finance (ARUC-ES) 조사, 2006

새로운 이니셔티브: 몬트리올의 예술

현재 퀘벡에는 문화에 목표를 둔 120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있다. (Chantier, 2007) 이들은 지역민을 관람자가 아니라 공동 제작자로 참여하도록 하여 사회 참여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다. 몬트리올 내에는 다양한 이니셔티브들이 산재해 있는 데, 이중 표본이 되는 곳은 la Tohu로 몬트리올 북쪽에 위치하여 다양한 인종

그룹과 서커스를 하면서, 지역사회 활성화에 역할을 다하고 있다. 직접고용과 노동 통합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통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혁신적 환경기술을 사용하는 녹색건물에 있으며, 지역사회기반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모델이 되고 있다. 현재 두 가지 기금이 샹티에와 파트너에 의해 개발되고 있는 데, 첫 번째는 5년 동안 매년 1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기금으로 시민 모두의 문화 활동에의 참여와 문화적 중재의 역량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Fiducie에서 비롯된 기관에서 조성된 1,800만 달러의 상환유예자본(patient capital) 투자로 예술가와 문화활동(스튜디오공간)을 위한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함이다 (15년 대출기간 내 상환부담 없음). 샹티에와 파트너들은 이러한 두 가지 펀드 추천서에서, 문화사회적경제기업이 평균적으로 75%의 자금을 자체 조달할 수 있는 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그들의 사회적 예술적 목표를 다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추천서는 또한 어떻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며, 프로젝트 분석에 있어 다양한 전문가가 어떻게 과제와 책임을 수립하고 발전시킬 것인지 보여준다. 위와 같은 활동은 특정 분야 개발에 샹티에와 지역 활동가 사이의 파트너십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연구파트너십

퀘벡에서 연구자와 실무자 사이의 관계도 “함께 협력해야 co-construction” 했다. 연방 사회 과학 및 인간 연구 협의회(federal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가 설립한 새로운 ‘지역사회-대학 연구연맹프로그램(CURA)’가 이러한 관계의 구심점이 되었으며 이제 거의 10년째에 접어든다. 여전히 연구자와 실무자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엔 어려움이 있지만, 이들은 함께 협력하여 제때에 긴급한 사안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도구 개발을 함께 진행한다. CURA는 이들이 함께 논의하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한다. 이 연구 그룹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경험적 이론적 분석을 함께 제공한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참여적이고 서로 배우는 혁신적인 환경을 조성했다. 더 많은 학생들이 대학코스과 프로그램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역사회 경제개발과 사회적 경제를 배우고 있으며, 인턴이나 프로젝트 연구 보조로 일하면서 사회적 경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금융, 교육, 기업개발, 연구 등의 구체적 도구 개발을 함께 진행하며, 지역, 주, 국가단위의 연맹을 형성하고 있다.

결론

퀘벡의 사회적 경제에 다양한 수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며, 경계를 넘나드는 샹티에라는 네트워크 조직은 시민사회로부터 기인한 것이며, 많은 섹터를 대표해

한 목소리를 내어 정치적 영향을 미친다. 샹티에는 이러한 분권화된 거버넌스를 수행하는 복잡한 그물망 조직이다. 또한 다양한 연맹체와 리더십을 발휘하는 기관도 퀘벡의 사회적 경제에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적 경제를 수행함에 있어 정부의 수평성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것이 중요한데 퀘벡은 이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곳이다.

2. 기관방문

1) Concordia University 사회적 경제 전문가 간담회

(1) 기관개요

1974년 Loyola College와 Sir George Williams University가 합쳐져 탄생된 Concordia대학은 그 뿌리가 100년이 넘는 정도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으며 캐나다 도심에 위치한 대학중 최대의 학교로 손꼽힌다. Concordia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몬트리올은 세인트로렌스강변에 위치한 인구 2백50만의 불어권 국제도시로 주민의 3분의 1은 영어를 사용하며 Concordia대학도 영어권 대학이다. 현재 사회적 경제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조직 현장활동가와 연구자간 연구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2) 논의 사항

○ 피라미드 경제로 인한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적 경제방식은 무엇인가?

근원적 문제는 인도에서 1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유럽과 미국, 일본과 한국 등에서 1,000원 이상의 가격에 팔리고 있으며, 그 이윤은 모두 피라미드의 꼭짓점에 살고 있는 소수의 국제 자본가에게 집중되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자가 중개자(자본가)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바로 연결되어 부의 재분배가 보다 원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것을 ‘규모의 경제학’을 대체하는 ‘적정성의 경제’, ‘경쟁의 경제’에서 ‘상호부조적 호혜의 경제’ ‘수평적 네트워크의 경제’로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좋은 사례로 한국의 원주지역 생활협동조합의 발전 역사나 협동조합간 협력, 새로운 사회적기업 기획창업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소비자 가치 창조가 필요하다. 즉, ‘규모의 경제’원리로 돌아가는 현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단기간내에 최대 자본을 투여하여, 비용을

최저로 낮추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원리를 취한다. 따라서 소규모 원자재 농가와 이들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금전적 가치로만 판단했을 때 대기업과 경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는 금전적 가치 이외에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가 발생시키는 사회적가치를 염두에 두고, 친환경적이며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이익이 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선택 할 수 있어야 한다.

○ 혁신적인 사회적 비즈니스모델 마련

저개발국에서 위생 상태를 개선하지 못하고 전염성 질환이 도는 것은 이에 대한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다. 위생상태 개선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비누를 사용하는 것인데, 비누의 가격을 소비자가 감당할 수 없어서 이기 때문이다. 즉, 중요한 것은 소수의 사람들만 첨단 기술의 기술을 개발,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저가에 공급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기업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IT 기술 및 회계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빈곤층에 필요한 재화를 소셜벤처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제공가능하게 하는 기술결합이 필요하다. 또한 섹터간 협력으로 조합 영세성 한계극복이 필요하다.

○ 지역기반의 사회적기업의 과제 : 도시간 인구 유동성 문제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도시와 지방간 경제격차가 발생하면서, 지방 인력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속적으로 도시로 유입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지방의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방경제는 점차 더 후퇴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와 같은 인구유동성 문제는 캐나다, 한국 양국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방의 청년 인재들이 지방에서 일하고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협동조합 모델을 통한 다양한 시도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협동조합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여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며, 잉여분은 지역의 공공정책을 통하여 빈곤가정에게 지원한다거나, 중산층에게 유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빈곤가정에는 무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예가 바로 그것이다. 협동조합은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갖고 지역사회에서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고 활동해 왔다. 그러나 많은 협동조합들이 거기에 참여할 만한 지적수준과 경제적 역량을 가진 사람들의 자조적 공동체로 되어버려, 여전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빈곤과 차별의 문제에 적극적인 참여와 대안은 아쉬운 실정이다.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 사회적경제를 위한 통합적 어프로치

- 지역화폐, 대안금융, 제도금융, 협동조합기금 등 전통적 금융자원에 더한 사회적경제 자원의 다양성 확보가 중요하다. 또한 유기농급식, 공정무역, 로컬푸드 등 대안적 사업아이템이 중요하다. 다음은 그 활동 예이다.

● 지역화폐: 금전적 가치에 기준을 둔 화폐 이외에, 지역사회 거주민들의 시간활애에 기준을 두거나 제공하는 서비스에 기준을 둔 새로운 형식의 교환경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고질적으로 부족했던 보육 및 간병 서비스를 지역사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자신이 행했던 서비스가 자신의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으므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 실제로 뉴욕의 이타카 지역에서는 1992년부터 신탁에서 지역화폐를 받기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식품 구매 및 치과치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푸드마일리지⁵⁾를 고려한 먹거리 문화: 연구 결과, 캘리포니아의 경우 먹거리의 80%를 이외의 지역에서 수입한다고 나타났다. 실제로 이러한 음식이 더 저렴할 수 는 있으나, 건강상에도 지역사회 경제에도 플러스요인이 되지 못한다. 공동체지원농업(CSA)⁶⁾을 통한 바른 먹거리 생산 및 소비가 중요하다.

- 한국의 경우,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지역사회 자체 내의 자원과 관련 지원 환경 부재로 위와 같은 활동을 이행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을 위해 일하는 중간지원체의 활동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통합지원 및 가치융합과 같은 하이브리드의 하이브리드가 필요하며, 현장활동 이니셔티브에대한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

- 지역의 풀뿌리 조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항상 기관의 수익성은 공익과 상충될 수 있으므로, 공익과 연계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육서비스의

5) 영국의 소비자운동가 팀랭(Tim Lang)은 1994년부터 푸드 마일(food miles)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농산물의 '산지에서 식탁까지'의 거리에 착안한 개념으로서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하는 것이 식품의 안전성이 높으면서 수송에 따른 환경오염을 경감한다는 주장이다. (김태곤, 한국노동경제연구원, 2002)

6) 1986년에 시작된 미국의 CSA 프로그램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회원제 직거래 시스템이다. 회원인 소비자는 1년치를 선납 출자하고, 신선한 유기농 작물을 매주 싼값에 공급받는다. 생산자는 CSA 쪽과 연간 공급 계약을 맺음으로써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받는다. 특히 CSA에서 선납받은 소비자들의 출자금 은 휴작 등으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더라도 환불해 줄 의무가 없다. (김현대, 한겨레 지역경제디자인센터, 2009)

경우 서비스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가격을 책정한다면 기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보장할 수 있지만, 빈곤가정은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정부지원을 통해 빈곤가정에게는 요금징수를 달리 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 다원주의 경제체제 지향

자본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자유방임주의부터 사민주의까지 복지국가 모델은 다양하다. 사회적경제는 새로운 이론이 아니다. 자본주의경제가 발전하기 전부터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사회적경제가 최근 주목받는 것은 산업화의 과정에서 자본주의경제의 모순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떠한 방식이 한 번 실패하였다고 해서, 그 방식 전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사회는 한가지 방식으로만 이루어지 않았기 때문이다. 흑백논리가 아닌 모두를 포함하는 다원주의 경제체제를 구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과 캐나다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지만 사회적 상황은 판이하다. 미국의 경우 거대한 민간재단의 지원이 사회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지원 없이도 단기간에 어느 정도의 공공 서비스와 빈곤층 지원을 시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 기업가정신에 의존하는 미국모델의 경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경제위기로 인한 GE 대량해고 사태 등을 예방하지도 연대적으로 풀지도 못했다. 여기에서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는 데 있어 자원의 외부의존성의 위험을 생각해 보게 된다. 캐나다의 경우 이러한 민간재단의 지원 없이, 시민사회의 힘으로 정부와 교섭하고 개별의 시민의식을 이끌어 내어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했기에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려왔다. 한국의 경우 미국의 발전모델과 유사한 점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 경제체제의 근원적 한계를 보고 있는 요즘이, 한 발 앞서 이를 극복 할 수 있는 한국적 대안을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의 어떤 모델이 더 훌륭하고 더 타당하다가 아닌, 각 국가의 지역적 특수성에 맞게 창조성을 발휘하여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경제를 발달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발달을 위해서 시민사회 형성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적 정신의 이해가 필요하다. 하향식 관점이 아닌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상향식 사회합의문화를 형성하고 젊은 세대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도전과제가 제시 되어야 할 것이다.

2) Chantier de l'économie sociale [샹티에 드 르에코노미 소시알레]

(1) 기관개요

① 미션

- 퀘벡지역의 34개의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비영리기구), 지역개발 기구, 사회운동 기구 등 다양한 네트워크의 연합이다. 퀘벡지역 사회적경제 발전의 역사를 주도해온 네트워크 조직으로, 사회적경제 주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경제 발전을 이끌어내는 네트워크 지원기관이다. 또한 정보제공, 교류, 연구, 금융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샹티에는 1996년 퀘벡 경제사회미래정상회담에서 퀘벡 전체를 아우르는 기관으로 부각되었으며, 공동체 기업意識의 함양과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 후, 퀘벡지역 사회적경제 발전의 역사와 맥을 같이하면서 사회적경제를 정책 아젠다로 부각시키고, 지역경제발전을 통한 사회적경제 구축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있다

② 연혁 (퀘벡의 사회적경제를 중심으로)

- 퀘벡의 사회적경제는 100여년의 역사를 갖는데 1930년 농업협동조합을 최초로 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시민사회 기반의 새로운 사회적경제가 출현하였다.
- 1996년 경제위기로 퀘벡의 경제·사회미래에 관한 정상회담 (Summit of the Economic and Social Future of Quebec)을 열어 지자체와 민간영역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고용창출과 경제 정상화를 논의하고 협력하면서 사회적경제가 재부각되기 시작하였다.
- 당시 실무그룹 대표로 샹티에 대표인 낸시 닐탐이 참여하면서 지역사회에 부응한 고용창출과 이를 위한 정부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 1996년 정상회담은 퀘벡의 사회적경제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정리가 공공부문과 시민사회의 합의하에 이루어졌다. 사회적경제는 생산활동과 사회적책임이 결합된 경제이며, 여기서 사회적책임이라는 것은 민주적인 운영구조와 수익의 사회적 환원시스템 그리고 정부와는 독립된 자율적 경영체라는 원칙을 포함한다. 두 번째로 정상

회담의 성과라면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 연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 것이다. 실제로 현재 퀘백의 연대와 협력 네트워크는 단지 회의구조로서 또는 정책적 요구를 위한 선언에 머물지 않는다. 상티에를 통해 협력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동조합들은 자신들의 공제 기금으로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 사업체)에 직접 투자를 하고 지원한다. 대학의 연구자들은 연구자 그룹을 형성하여 각 현장의 활동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진단해주고 직접 지원해주고 있다. 세 번째로 시민사회의 주도하에 정부가 사회적경제를 공공정책의 주요 과제로 주목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사회적경제의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민간시장과 공공부문만을 경제의 주요한 주체로 인식해왔다. 그런데 정상회담을 계기로 사회적경제 즉 시민사회의 협동적이고 비영리적인 경제활동이 대단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과 지역 차원의 경제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정상회담의 과정을 지켜보면 우리는 퀘백 사회적경제의 두 가지 핵심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경제에서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과는 좀 다른 시각이다.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민간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정부의 기능을 축소하려는 입장에 대하여 오히려 정부는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사회적경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는 역동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정부와 협력하는 것은 정부를 적극적으로 견인하여 정부의 공적인 기능들이 더욱 강화되도록 이끌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둘째, 지역별로 그리고 업종별로, 거기에 각 네트워크 사이에도 다양한 협력과 연대관계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 상티에의 첫 번째 과제는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되 사회적 책임수행을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었다. 캐나다의 사회적 경제 조직은 시민사회 중심으로 구성되어 민주적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이 높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
- 이 후, 사회적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1차적 목표를 탁월히 달성한 상티에는 퀘백사회 내 정부뿐 아니라 전체 사회로부터 인정받게 되어 역할이 점차 강화된다. 정부·노동·기업·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세력을 규합하면서 상티에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 것은 매우 중요한 조직적 의미이다. 사회적경제의 주요주체로 인정받는 가운데 공공정책 개발, 사회적기업 대표와 대변, 정책개발과 네트워크 통한 공동전략수립이 상티에의 주요활동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조직체계, 직원구성

- 민주적 경영구조 중요성을 강조한다.
- 상티에는 시민사회 조직네트워크의 네트워크로서, 30여명 다양한 사회대표가 참여하는 이사회를 민주적 운영하고 있다. 이들 중, 8명은 사회적기업 업종대표가 이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 업종은 보육/ 지역사회라디오/ 협동조합/ 공정무역/ 주택/ 재활용 이다. 그외 이사회 임원은 사회적경제 지원조직 등의 지역사회 활동가로 구성된다. 이때 특이한 점은, 노조 여성운동 대표 등 사회적경제에 직접 관련성 적은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이사로 영입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이사회에서는 사회적기업의 합당한 노동조건에 대한 논의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을 함께 논의 한다.

(2) 운영현황

① 주요사업

- 지속가능성 확립을 위해 사회적기업의 창업 지원 (공동체적 리더십을 가진 조직의 설립조건 갖추도록 자문, 협상, 중재기능)
 - 상티에는 중간지원체로 직접 사회적기업 설립은 하지 않으며 지역사회의 욕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할 경우 사회적경제지원 금융조직 등 관련 전문조직 설립을 지원한다.
 - 주정부 차원의 중앙집중적 지원제도 체계를 마련하여 하위 지역사회 지원하도록 한다.
 - 사회적기업이 사회변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방향을 제시한다 (예, 사회적기업 내부민주화 지향)
 - 이 외에도, 사회적기업 발전위한 연구, 재무, 실무자 역량강화 등 여러 지원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
- 사회적기업에 적합한 경영방식 개발
 - 시장 활용, 인적자본 개발, 제도적 지원, 경영기술 향상 및 차별화 된 내용 마련한다. 특히, 경영역량 향상은 사회적기업 발전에 중요한 요인이므로, 분과별 경영역량강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그 예로는, 조달시장 형성을 위한 지자체 순회캠페인, 윤리소비 조성,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등이 있다.
- 사회적경제를 위한 자본시장 형성

- 정부와 협상을 통해 재정지원정책을 개발하였다. 1997년 RISQ와 같은 사회적기업만을 위한 대부기금 조성 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였다. RISQ는 초기 우려와 달리 성공적인 재정지원기관으로 평가 받고 있다.
- 사회적기업 대한 통제보다는 모범사례 발굴을 통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투자가 가능한 사회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RISQ 설립초기에는 소액대출중심으로 정부자금과 민간기부자원을 통하여 마련 기금을 조성하였다. 이 후, 민간자원 증가로 인한 기금증가와 대부업체 증가가 나타났다. 이 기금은 전액 상환유예자본(patient capital) 형태로 운영된다.
- 본 재정지원은 사회적투자가 사회적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 섹터간 조율

- 사회적기업은 하나의 특화된 섹터이다. 이에 비즈니스섹터 대표가 상티에 일부 참여하도록 하여, 다자간 합의와 참여로 제1~3섹터 간 협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를 움직이고 있다.
- 특히, 공공기업과 사회적기업간 협력이 중요하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영리기업의 시장교란 및 잠식은 사회적 경제에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섹터 간 조정과 협상이 중요하다.

○ 정부와의 교섭

정부의 공공정책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입장들을 강화시켜내는 일을 한다. 사회적경제가 강화되려면 단지 정부가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 분야에 대한 입장이 공식적인 예산과 사업으로 자리잡아야 하는데, 이는 대단히 장시간의 노력과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

○ 사회적기업 연구 강화

- 분과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지원방안 연구: 네트워크가 미약한 업종에 대한 협력을 지원하도록 한다. 연구결과, 네트워크 활발한 업종의 생존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부인지도 향상에 기여: 정부는 초기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및 유용성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연구 및 이에 대한 실천과정을 통해 분야별 지원제도 개발 등 정부의 역할 찾기를 적절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다양한 사회적경제 분야 개발

- 기존의 비즈니스 분야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기업의 사업 분야를

개발하고 있다. 농촌, 문화·예술 등 비활성화 된 업종개발에 주력중이며, 민주적이고 상호부조적 경제조직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유인 중에 있다.

- 신규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에 사회적기업을 접목시키고자 한다. 정부, 이민자협회, 상티에 등을 통해 참여 위원회를 조직하여 이민자 사회적기업의 필요성과 설립 방안을 고안 중에 있다.

②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현황

- 퀘벡 및 다른 대다수 지역의 사회적 경제가 직면한 문제는 대부분 제도적 문제이다. 법, 회계규정, 집단경영회사의 가치 및 부가가치의 적절한 평가와 측정 도구의 부재 등이다. 투자자원의 접근 가능성을 갖고 비즈니스기관으로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티에는 퀘벡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세부정보를 포함한 포털사이트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business to business 기업간 거래”와 같은 기업의 내부거래 시장을 생성할 예정에 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증 중인 마케팅 전략으로는 사회적책임소비, 사회적경제제품에 대한 라벨링, 박람회 등 준비 중에 있다.
- 몇 년 전부터 17개 분야별 모임 등 사회적기업 주체 모임 활발 진행중에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회적기업 홍보와 사회적 가치 제고하는 것이다. 이전엔 사회적기업의 정체성과 자부심이 부족했으며, 분야별 조직이상으로 인지되지 못하였으나, 현재는 상티에를 대표로하여 사회적경제가 주요한 경제영역중 하나임을 드러내고 하나의 사회적 주체로 드러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사회적기업 정보제공 포털 구축
4,700개의 사회적기업의 구체정보, 이들이 생산 재화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아가 퀘벡 지역 뿐만 아니라, 세계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대중캠페인 진행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공정무역 물품 및 현장의 생산품으로 기획판매전도 진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부문에 대한 판매를 높이기 위하여 지자체별 순회 홍보전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 사회적기업 국제네트워크 강화
사회적기업 공동 홍보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있으며, 브라질과 유럽, 미국 등지에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을 진행중에 있다. 대륙 간 네트워크를 통해

상시적인 연대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경제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지만 결코 지역단위로 고립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시장이 국제화되어 있으며 공공정책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가 지역단위로 시각이 분절되어서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퀘백의 활동가들이 세계 각국의 사회적경제 활동에 대한 공부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주정부에도 적극 요청한 결과 국제협력을 지원하는 예산도 일부 편성하였다.

③ 운영특징 및 기타

- 첫째, 1980년대 퀘백 노동자 연맹(Quebec Federation of Labour)과 ‘Confédération des syndicats nationaux (CSN)’의 조합원과 일반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진 연금 펀드인 ‘Fonds de solidarité de des travailleurs’과 FondAction라는 노동자 연대 펀드(Workers Solidarity Fund) 사례를 들 수 있다. Fonds는 지역 내에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업과 섹터에 투자하는 새로운 역할을 통해 퀘백 경제발전에서의 노동운동의 역할을 부각시켰고, Fonds의 설립과정에서 지방/연방 정부의 입법을 이끌어내었다.
- 1980년대 경제위기하에서 노동 운동과 지역사회 활동가들이 지역사회 재 활성화 전략을 이행하면서 지역사회 경제개발기업 (CDEC;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s)을 성장시키고 이들의 역할을 ‘사회적 중재에서 경제적 중재로’ 재포지셔닝하며 지속적 영향력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지역사회 활동가, 영리기업, 정부, 사회운동 등 다원적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의 문화가 자리 잡고, 새로운 지역사회기반의 중간기관-1998년에 주 전역에 나타난 지방개발센터(CLDs)-이 설립되는 모델이 되었다.

네트워크 조직의 역할과 활동

샹티에는 직접 사회적경제 조직들(연대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사업체 등)을 만들어 내는 곳은 아니다. 새로운 조직을 창조하는 것은 지역과 현장의 몫이며, 샹

티에는 이러한 조직의 설립과 정착을 지원하는 조직이다. 이들의 지원기능은 전 방위적이지만 또한 일관된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다. 조직의 경영 시스템 안정화를 지원하기도 하고, 업무상 필요한 교육훈련도 지원하고 있다. 설비투자기금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자립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지원하고도 있다. 무엇보다도 퀘백 전 지역을 네트워크하면서 각 지역의 경험들을 신규 조직들에게 전하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홍보분야를 예로 들면 퀘백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활동과 사업을 알려내기 위한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였는데 여기에는 현재 4700개의 조직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현재 7,000여개 사회적경제조직 활동중). 홍보는 사업 전 분야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별한 이벤트도 현장과 함께 개최한다.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지역의 현장 사회적경제조직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는 배경이 될 것이다.

상티에는 자체가 민주적인 풀뿌리 조직으로서의 기본가치를 상실하지 않도록 운영 구조도 원칙에 맞게 준비되어 있었다. 이사회는 경우 3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분야별 사회적경제 대표자가 8인이 참여하고, 여기에 지역의 네트워크 대표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나머지 이사들은 사회단체 즉 노동조합과 여성단체 등을 대표한다. 이사회는 가장 핵심적인 논의안건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것이다. 이는 캐나다 퀘백의 사회적경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사업과 자본’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직접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경영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한국과 캐나다 퀘백이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데 양국 사회적경제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와 함께 일하게 된 지역주민, 노동자가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지켜가면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이사회는 핵심안건이고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가기 위해 사업과 경영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퀘백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모습이다. 이들은 지난 수년간 이사회에서는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 및 제도적 장치의 개발에 매진하였다. 인격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연수의 기회를 마련하게 된 것도 그 때문이며,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일반 민간기업처럼 높은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어려운 형편이지만 인격적인 조직문화와 민주적인 참여, 충분한 자기성장의 기회와 공동체를 통한 안정감을 제공하여 자존감있는 노동자가 되도록 하자는 것이 이들이 고민이요, 실천과제이다.

3) 캐나다 사회적 경제 개별 주체와의 인터뷰

(1) 인터뷰 일시 및 장소: 2009년 8월 25일, 26일 (09:00~12:30), 샤틀리에

(2) 인터뷰 기관 소개 및 내용

면담자	Stéphane Bouchard, Regionals affairs director
소속	퀘벡 주정부 [ministère des Affaires municipales, Régions et Occupation du territoire (MAMROT), Quebec gouvernement]
소속기관 소개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지역 및 주 전체의 행정 및 개발을 지원한다. http://www.mamrot.gouv.qc.ca/ 다양한 법 개정 연구 결과 및, 협의내용을 게시하는 웹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http://www.finance.gouv.qc.ca/

○ 지방정부의 사회적기업 관련 지원제도 및 계획 소개

지역 활성화를 위한 flexible modes of governance(정부의 유연한 태도)는 다양한 사회주체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정치문화와 제도적 혁신을 견인한다.

○ 정권교체 시 정부 협력변화

퀘벡에서는 1997년 이후 한 번의 정권교체가 있었다. 이전 정권의 성과를 인정거나 승계를 피하려고 했으나, 사회적경제 경향은 이미 퀘벡의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았다. 또한 전국적으로 영향력있는 조직으로 샤틀리에가 자리잡은 이 후라서, 주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경제의 근간부터 흔들지는 못했다. 다양한 사회세력간 사회적 합의와 사회적경제 관련세력의 사회적 영향력이 일정정도 중요하게 자리잡은 상태이며, 양극화와 고용창출 등의 사회문제 배경이 달라지지 않은 상태여서 이러한 정책적 연계가 가능했다. 그러나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정권교체 후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적 변화가 있었다.

시민사회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유지하면서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각 사회주체간 합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이해하도록 하고,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부처가 사회적경제를 전담했을 때 각 정부부처 전체를 아우를 수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2006년 퀘벡 행동지침 발표하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제언 총망라하였고, 현재 주와 연방정부의 다양한 부처와 협력 중에 있다.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지역사회 욕구와 필요에 기반한 정책제안을 수행하고, 여기에 정부를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 사회서비스 제공하는 다른 일반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중복, 경쟁문제

일반 기업과의 눈에 띄는 경쟁은 없다. 기존기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분야를 개발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이 역할이다. 이에 정부,기업,사회적기업 간 각자 역할과 범주에 대한 기준논의를 활발히 하고, 서로가 할 수 없는 것을 상호보완하도록 방향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영리기업의 지역사회 욕구부응도가 낮아 접근하기 어려운 재가간병서비스의 경우 사회적기업이 새로운 방식으로 이 시장에 참여 한다. 사회적기업을 통해 부각되는 업종은 시대나 경제상황 등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자체 관심 높은지역은 사회적기업 활성화와 성과편차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각각의 위상, 협력의 관점

퀘벡정부는 사회적 경제 발전에 필요한 공공 재정지원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 및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의 혁신적인 이니셔티브가 반드시 당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고안되는 것이 아니며, 지역사회 내의 사회적, 경제적 해결능력을 배양하기 위함일 수도 있다. 이에 다양한 정부 부처 및 섹터와 협력하면서 조율된 분권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컨설팅(concertation, 협동을 의미<프랑스,정치용어>)이란 단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용어는 퀘벡의 주요 3 섹터인 기업, 정부, 노조의 삼자 협의 및 대화를 의미하는 데 사용하며, 이는 퀘벡의 정치문화 전반에 자리잡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정부는 정책입안 시, 사회적 경제 활동가와 함께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적 접근법을 갖추고, 다양한 구성원이 사회적 경제에 직접 관여하고, 섹터간 대화를 통해 목표를 공유할 수 있는 매개 공간을 만들어 간다. 이렇듯이 사회적 경제의 발전은 정부의 부담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 및 중재 형태를 변화시킨다 라고 볼 수 있다.

○ 사회적기업을 위한 정부 부처간, 중앙-지자체간 협력과 조정의 중요성

(지역사회부를 사회적경제 전담 부처로 두고 부처를 넘나드는 정부지원 장려)

- 사회적 경제가 부처 간 이기주의 없이, 수평적 정책환경에서 협력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퀘벡 주정부는 초기개발을 내각 상임위원회(Executive Committee of Cabinet)에서 맡아 진행한 것이 사회적 경제의 발달과 정치적 역량을 상승시키는데 아주 유효했다. 이런 전통은 주관조직이 바뀌는 가운데도 유지되고 있는데, 2001년 사회적 경제 특별위원회(special office for the social economy)가 재정경제개발부(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로, 2003년 정권교체로 경제개발혁신통상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Innovation and Trade; MDEIE)로 이관되면서 난관을 겪다가 결국 2007년, 지방자치 및 지역사회부(Ministry of Municipal and Regional

Affairs)로 옮겨져 다시 안정화 되었다. 현재 퀘벡주와 타주정부간의 사회적경제 위한 소통과 협력은 사회적경제에 관한 연구협력 정도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주정부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다.

퀘벡주의 지역사회부, 고용부, 청소년부서 등 다양부서의 협력과 역할 등을 제시한 '협동기업가(the entrepreneurs of collective enterprise)를 위한 정부실천계획('08.11.2)'을 상티에와 협력 하에 수립하고 사회적기업간 네트워크 지원, 사회적경제 개발전략 구상, 퀘벡에서 개발방안 마련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부처 간 협력을 매우 중요시 하여 지역사회부를 두어 지자체 및 지역발전 업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사회부에서 사회적경제를 맡게 된 배경에는 '지역사회 시민주도성과 하위 지자체 단위의 주도성을 갖는 지역사회 중심 경제개발 방안으로서 사회적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 퀘벡 사회적경제를 위한 주요 정부지원

- 재정지원: 정부의 다양한 지원 중에서 재정 지원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퀘벡정부도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중이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 실제로 민관 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해 지고 있다. 사회적기업 생존을 위한 재정지원을 시행하였다. 전체 84억 달러 중 보육에 61억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이외에도 주택, 환경, 사회적경제네트워크(상티에)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재정지원 방식을 생각해 보고 있으며, 매칭펀드방식(대응재원조달)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매칭펀드 통한 지자체 지원 시 재정자립도 따라 경제 미활성화 지역이 역차별 받을 수 있다. 즉 지자체간 부익부빈 악화 현상이 사회적경제의 재정지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퀘벡은 정부 재정지원 시 빈곤지역 우선투자 원칙화하고자 한다. 또한 지자체협의회의 협정을 통해, 소규모 특정 지자체로 지원하기보다, 좀 더 넓은 지방으로 지원하여 그 안에서 조정하게하면서 역차별 해소를 노력하고 있다.

○ -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 : 지자체 의원과 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한 '지자체 지역협의회'(2004 발족)와 주정부 간 매년 협정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 상황 대변과 지자체 지원방안 수립을 유도한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주정부와 매칭펀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환경을 조성 중에 있다. 매년 이루어지는 본 협정은 사회적경제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만을 제시하고, 지역현실에 맞는 구체 현실계획은 지역에서 직접 나오도록 하고 있다.

○ - 부처를 아우르는 사회적기업협의회 구성: 이를 통해 부처간 협력, 조화를 이루고자 한다. 아직 실무그룹 구성 이전이며, 2009년 가을 설립예정이다. 협의회는 상티에 대표, 사회적기업 대표, 관련 연구자 등으로 구성 될 예정이며, 가장

실직적인 사회적기업지원조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 궁극적으로 정부의 사회적기업지원은 사회적기업을 통한 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 책임을 방기하기 위함이 아니다. 정부, 사회적기업, 영리 기업의 역할이 분명히 다르고 각자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공공정책에 무리한 희생하면서 사회적기업 지원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은 사회적기업 임금지원 차원에서 머물러 서는 안된다. 사회적기업의 생존가능성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큰 역할이다.
- 사회적기업 교육훈련 강화, 인지도 제고(특히 공무원 의식개혁 강조)
 - 현재 사회적기업과 비영리기관 관련 법 개정 작업 중에 있다. 이는 사회적기업의 인지도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차적으로는 청소년과 아메리카 원주민, 에스키모원주민, 신규이민자 대상의 사회적기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한 고용문제 해결을 정책 목표로 하여 지원하고자 한다.
 - 퀘벡정부는 홍보 예산중 4%는 지역 내 사회적기업 인지도 제고비용으로 사용토록 강제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사회적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 공무원의 이해증진, 사회적기업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 또한,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정책을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현재 권장조항 수준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면담자	Jacques Charest, Executive Director
소속	Fiducie du Chantier de l'économie sociale (FCES)
소속기관 소개	FCES는 퀘벡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부문의 사회적경제 조직에 한해서 5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까지의 대출을 제공한다. 15년 후 상환 조건의 상환유예자본(patient capital)을 제공하여, 해당 기관이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회적기업은 전체 프로젝트 비용의 35%까지 FCES의 대출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 http://fiducieduchantier.qc.ca/

- FCES 배경
 - 상티에는 이전부터 사회적기업 재원확보 시 어려움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보통 단기대출이나 벤처캐피탈을 이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위한 자금을 충당해왔으나, 이는 10~15%의 대출 이율과 짧은 상환기간으로 사회적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기도 하였다.
 - 따라서 상티에는 이를 위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세부 정보와 분석을 제공하는 일에 더해 사회적기업 맵핑, FCES의 잠재고객을 찾기 위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예측서 제작을 진행하였고, 이러한 상티에의 지원으로 2007년 FCES가 출범하였다

- 총 5,380만 달러의 상환유예자본(patient capital) 또는 유사 주식 기금을 통해 협동기업이 장기 계획에 착수하고, 부동산에 투자하도록 하며, 빛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였다.
- FCES의 새로운 금융상품은 무담보 회사채의 형식이며, 15년의 대출 기간 후에 상환하도록 한다.

○ FCES 미션

- 사회적기업의 자본화 비율 제고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는 생존과 수익률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데, 고이율의 기금은 재정부담을 가중하게 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FCES 장기 대출상품을 개발하였다.

- 투자자들에게 이익되는 투자상품 개발

사회적기업에 투자 시 수익성이 없다는 기존의 투자개념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들에게 적절한 상품을 개발한다. 사회적기업의 주식상장은 어려우나, 투자자의 사외이사 참여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 의무 보증을 최소화하고 상환을 유예해주는 장기 대출 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 자본시장과 사회적기업의 중간매개 자본시장 조성

민간투자자가 위험최소화 하면서 사회적기업 투자 증가할 수 있는 투자포트폴리오 제시하는 중간매개조직 역할 수행

○ FCES 현황

- 재원: 정부 (3천만 달러), 노조연맹(2천만 달러) 등으로 구성

- 이자: 연8%, 15년 <비교: 벤처 10~15%이자, 3년 대부>

- 지원대상 기준: 협동조합과 비영리조직,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

(단, 공공기관이나 정부지원 받는 조직은 정부지원 확보가 가능하므로 제외)

구체적인 대출기준으로는 경영상태나 수익성 평가가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기여정도나 향후 사업전망이 핵심 평가기준이다. (예, 저개발지역 지역사회호텔개발 프로젝트: 지역주민 및 공동체에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 납품할 수 있고, 지역사회 협력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고용창출 및 지역발전 효과가 높다.)

- 지원내역: 운영자금 대출(5~25만 달러 대출)

타 금융권에 상환을 위한 대출 불가, 부동산 (부지와 시설) 구입을 위한 대출 제공

(단, FCES의 대출은 사회적기업의 전체 프로젝트 비용의 35%이내 금액으로 제

한하여 리스크 분산)

○ FCES 특징

- 사회적기업과 네트워크를 통한 업무효율 극대화

그간 1천만 달러 대출을 진행하는 데, 3명만이 행정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기업에서 사전 서류준비나 검증절차 수행해주기 때문에 가능하다.

- 투자위원회 구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투자대상을 추천하고 선정한다. 최종 투자대상 선정위원회는 별도로 운영된다. 여기에는 3명의 투자가 대표, 지역사회에 이해가 높은 5명의 지역개발 단체 대표가 함께 하며, 여기에서 결정된 투자처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사회적경제조직 통합 지원서비스

장기대출 서비스와 함께, 재무 상담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한 다양한 경영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 투자자 확대 노력

매년 투자를 받은 사회적기업으로부터 연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FCES의 웹사이트에 기재하고 있다. 또한 FCES의 대출효과를 모은 보고서를 준비중에 있다.

- 사회적 투자 효과 평가 시 기준

명문화된 기준은 아직 없다. 하지만 현장조직의 필요가 잘 충족되었는지, 고용 창출이 이루어 졌는지를 주요 투자효과라고 생각한다.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효과를 중요시 한다. 예를 들어, 지역경제가 어려운 지역에서 해당지역 내 소규모 식품가게를 사회적기업으로 설립토록 한 일이 있다. 전액 조합원출자로, FCES에서는 경영자문만 진행하였다. 이 때, 이 지역에서 대기업이 운영하던 슈퍼가 있었는데, 이 가게에 영향을 받아 다양한 지역사회활동 및 슈퍼 전반을 개선한 일이 있었다. 즉, 직접적으로 사회적기업이 모든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워도 사회전반의 영리기업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면담자	Stéphane Chabot, Executive Director
소속	Réseau d'investissement social du Québec (RISQ)
소속기관 소개	퀘벡 정부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출과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투자 펀드를 만들어 민간섹터의 기여를 극대화 시켰다. RISQ는 1997년 설립된 조직으로 공동체운영회사를 위한 독보적인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첫 투자기관이다. RISQ의

	<p>목적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초기자금을 조성해줌으로써 공동체운영회사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것이다.</p> <p>http://www.fonds-risq.qc.ca</p>
--	--

○ RISQ 배경

RISQ는 1997년 설립된 조직으로 협동기업을 위한 독보적인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첫 투자기관이다. 현재까지 5백 개 투자처에 1,200만 달러를 지원 (상환 받은 후 재 대출한 금액포함)하였다. 연간 30건 자본투자와 실무지원 20~25건을 진행하고 있다

○ RISQ 미션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자본 지원하는 비영리 벤처캐피탈 조직으로, 주목적은 지역사회 경제발전을 위해, 섹터 간 협력을 위한 자원을 조성한다.

○ RISQ 현황

- 상품내용

- ① 기술지원 상품: 5만 달러 이내로, 시장조사나 경영컨설팅비용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투자한다. 구체적 프로젝트 설계과정에서는 보조금형태로 사용하고 상환하지 않다가, 사업 진행시 상환토록한다.
- ② 자본투자상품: 2~5만 달러 내 소액대출상품이다. 일반 금융권에서는 소액 대출이 수익성이 낮아 기피하므로 RISQ가 소액대출에 정부지원을 받아 실시한다. 대출기간은 5년이다.

- 투자대상 선정

투자위원회가 투자적절성을 평가하고, 대출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위원회가 최종 투자대상을 선정한다. 인간적인 가치를 우선 시하는 조직인 지에 대한 평가가 대출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여기에는 사회적 목적성, 민주적의사결정구조 등이 포함 된다.

○ RISQ 특징

- 정부가 기금조성: 1997년 정부가 1천만 달러의 기금을 제공하면서, 매칭펀드로 타 재원 끌어들이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알루미늄회사, 약국 체인, 금융기관 등 민간 투자조직 다수가 참여함
- 금융분석가 5명으로 구성된 RISQ는 대출분석과 대출이후 경영성과 분석까지 담당하고 있어, 업무의 과중도가 심한편이다.
- 현재 투자손실의 매년증가로 정부의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5백만 달러를 추가로 기금 조성하여 지원하였다. 조직 재정상태만 볼 때 현재까지 손실이 더 크지만, RISQ가 사회적경제에 미친 긍정적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 사회적기업을 위한 차별화된 금융분석 방식 개발: 사회적경제조직의 재정분석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현재 이에 대한 2일간의 교육 프로그램 구성 중에 있다. 이는 캐나다 내 사회적기업 분석가 양성의 중요성을 견지한 것이다. 현재 타 대안금융조직과 정보교류 등 활발한 네트워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역개발센터 내 개발분석가 와도 교류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을 개발 중이다.

면담자	Céline Charpentier, Executive Director
소속	사회적경제 노동시장에 관한 분과 위원회 Sectoral committee on the labour market in the social economy (CSMO-ÉSAC)
소속기관 소개	노동 및 고용 개발을 위한 사회적경제와 지역사회 활동 섹터에 탁월한 전문과 협력을 증진시킨다. 위원회는 심층적인 노동시장에대한 전문성을 통해 이러한 부문의 비즈니스 및 기관에 나타나는 노동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T http://www.csmoesac.qc.ca/

○ CSMO 배경

- 사회적기업 활동가들이 노동인력 개발의 필요에 대해 논의하는 구조로, CSMO 구성을 시작하여 1997년 설립되었다.

○ CSMO 미션

- 동일 영역의 사람들이 노동 관련한 정책개발과 노동력 향상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기업, 지역, 사회적기업 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인력 인데, 노동능력 보다 동종직업인 사이의 유대감과 사회적 책임의식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의 노동이 자기만족적 조직활동이 아닌 퀘백시와 주민으로부터 인정받는 활동으로 각인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 CSMO 현황

- 사업분야
 - 양질의 지속 가능한 고용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기존의 노동에 관한 욕구 불만을 해결하고, 창의적으로 새로운 욕구에 대응한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경제 노동시장에 관한 만족도를 조사한다.
 - 체계적 노동통계 구축 및 분석 (직업과 정책개발에 근거마련 중요)을 시행한다. 정책협의, 새로운 직업 발굴 및 양성, 웹 통해 업종분과별 구인 정보-구직자 연계를 제공한다. 연구결과를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불어).
 - 지역 특화된 사회서비스 개발을 위한 수요공급 조사를 실시한다. 몬트리

올 시내 회계과에서 전체 기업에 대한 수요 및 공급을 조사하는 반면, CSMO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맞는 수요공급 조사 측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 현재는 니트족(NEET) 탈학교 청소년 캠페인 포스터를 제작하여 전국 학교와 단체 발송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연차보고서, 직업 분과별로 직업 설명 브로슈어도 제작하고 있다.

- 직업훈련:

- ① 인적자원 관리 툴 개발:

- 직원 평가방법, 민주적 조직경영법(민주경영 인한 어려움과 해결법) 등에 대한 경영진 요구 많아 이를 CD로 만들어서 웹에서 배포한다.

- ② 새로운 직업개발과 고용창출 전략 수립:

- 퀘백내 사회적기업 교육, 분과별 조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새로운 직업분야 개발과 고용창출을 지원한다

- 예) 재가간병 - 특별한 학교교육과정이 없는 새로운 직업이고, 이에 대한 세부직종은 11개로 나누어 진다. 참여자의 80%는 여성이며, 고졸미만자 다수가 다수 이다. 퀘백에서 현재 6천여명이 이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경험을 통한 인력약성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재가간병에 대한 직업훈련과정을 고안하고 있으며, 정부에 활발한 정책제안을 통해 재가간병에 대한 자격증 제도 도입을 건언하고 있다.

- 대상

사회적경제 영역 내 30개 업종 (보육/리사이클링/건축사/변호사 등) 12만 5천명을 대상으로 한다. 직업별 세분화 시 200여개를 아우른다.

- 조직

- ① 위원회: 분과별 이사제도를 통해, 사회적기업 경영진 대표와 노동자 대표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시민사회 6명, 공동체소유기업 6명, 노조대표 6명)
 - ② 직원: 상근 5명. 업무 효율화를 위한 매뉴얼 개발로 인력부족을 보완하고 있다.

- 자원

퀘백주 노동관련 부서 지원과 민간지원이 혼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이 80%에 이른다. 그러나 CSMO은 정부의 고용관련 업무 대행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아니다.

○ CSMO 특징

- 현안 과제:

- ① 사회적경제 리더들이 이제 50~60대로 접어들어 차세대 지도자 양성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3년 전부터 이에 대한 대안연구, 현 리더 은퇴 유보하며 세대 간 단절을 예방 중에 있다) 상티에는 몇 년전 부터, 청소년 협동서비스연합 설립하였으며, 사회적기업 공부 학생모임 등, 지역사회 내 청소년/청년조

직등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

- ② 직업 만족도 제고방안 개발- 저임금으로 인한 높은 이직율이 문제가 되고 있어, 노동시간 단축, 융자 등 복리후생 개발 등을 모색하고 과제화 한다. 개별 조직 아닌 집단적 해법 모색이 중요하다.

- 사회적기업의 노조 형성:

사회적기업의 노동조합은 현재 초기단계에 있다. 보육관련 사회적기업이 최초로 노조를 결성하였다. 그러나, 전체 4만 5천명의 사회적경제조직 인구 중 노조 결성률은 5% 미만이다. 1996년 정상회담 직후 보육노조 결성하여 근로조건 개선 효과 높여온 것은 장점이나 사회적기업의 수익성이 낮은 상태에서 노조의 요구가 강조되어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사회적기업의 노조는 사회경제스러운 노조역할을 장려하려고 한다. 단, 최종 결정은 사회적기업의 자기선택 과제임.

일반기업과 같이 사회적기업에도 연금펀드 조성을 준비중에 있으며 사회적기업에도 대기업에 준하는 노동환경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다.

면담자	Jean-Marc Fontan, Co-Director(ARUC-ÉS / RQRP-ÉS),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UQAM)
소속	Alliance de recherche universités-communautés en économie sociale (ARUC-ÉS) and the Réseau québécois de recherche partenariale en économie sociale (RQRP-ÉS)
소속기관 소개	ARUC-ÉS와 RQRP-ÉS는 교육, 정보제공, 지식공유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연구활동을 한다. 퀘벡과 그 외 캐나다 지역에서 ARUC-ÉS와 RQRP-ÉS의 활동은 점점 더 널리 알려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http://www.aruces.uqam.ca/Portals/0/docs/Information%20%28english%29.pdf

ARUC-ÉS와 RQRP-ÉS는 각각 2000년 2005년도에 설립되었다. 연구자와 현장활동가의 협력을 통해, 캐나다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주요 연구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연구에 있어 현장 활동가들과의 협력이 더욱 일반화 되고 있는데 이는 대학, 연구자의 한계를 보완하며, 보다 평등한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지역정책에 영향 미칠 연구 시, 현장활동가와 함께 실질적인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새롭고 유효성 있는 연구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진행된 연구는 다양한 지역사회 욕구에 보다 잘 대응가능하며, 실천적이고, 문제해결 역량을 모으고 높일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조직은 정책개발에 있어 민관의 협력이 필수적인 캐나다 정책개발 기본구조를 뒷받침해주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기관으로 평가 받고 있다.

○ 캐나다 정책개발의 기본 ‘M’ 형구조

- 1) ‘↑’ 기저에 사회운동가가 있어, 이들이 지역사회 욕구를 담아 정책제안하면, 상부의 정부에 전달
- 2) ‘↑↘’ 검토 후 다시 보완사항 등을 담아 지역활동가들에게 정부가 재 제안
- 3) ‘↑↘↗’ 지역 내 연구와 현실 정치욕구 담은 정교해진 정책제언으로 다시 정부에 제기
- 4) ‘↑↘↗↓’ 이를 수렴하는 각종 민관조직을 통해 정책화 되어 지역에 영향 내려오는 구조

현재 80여명의 연구조사자와 60여개의 사회적경제 현장조직이 있으며, 100여명의 학생들이 공동 작업하고 있다. 현재까지 200여개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이렇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서 두 명의 협력코디네이터에게 막강 리더십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 조직들은 연구프로젝트 과정 중 현장감담회를 강조하는 등의 실행원칙을 갖고 있다.

면담자	Johanne Lavoie, social economy commissioner
소속	City of Montreal 몬트리올시 사회적경제국
소속기관 소개 (시측면에서 사회적경제의 효과성 소개)	<p>협동조합, 비영리조직, 사회적기업 등 협동기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 거주민의 욕구에 부응함에 따라 시 개발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기관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뿐 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를 생성하였다. 이들은 또한 여가, 문화, 보육, 노인서비스, 보건, 사회서비스, 폐기물처리, 음식서비스 등 지역단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지역사회 기관은 지속가능한개발 측면에서 취약계층에 재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 또한 이들은 비영리 주택 협동조합 및 연맹을 설립하여 몬트리올 시 주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p> <p>http://ville.montreal.qc.ca/portal/page?_pageid=5617,35449580&_dad=portal&_schema=PORTAL (2009년 9월 중순 영문 웹사이트 오픈 예정)</p>

2005년, 민관협력 하에 몬트리올시 사회적경제 정책을 수립하였다. 2004년부터 1년간 몬트리올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실무 중심으로 구성하여 정책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시의회 제안하여, 2005 년 채택된 것이다.

○ 문화등 다양한 사업분야를 총망라 하는 정책이었으나 몬트리올시가 그간 사회서비스 정책이 보육, 재가간병 등을 포괄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를 중점

사업화 하고자 하여, 사업분야 우선순위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민관 파트너십 범위 설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 본 정책수립의 목적은 공동체 파트너십 (거버넌스) 구축, 사회적기업을 위한 경영 및 재정 지원 등을 수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시행 근거 마련, 시민 삶의 질 향상, 실질적인 대민서비스 향상, 사회적기업의 중요성 홍보를 위함이었다.
- 사업내용으로는
 - ①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 (공무원, 시민, 국제적 홍보 위해 국회의원, 시의원, 시정 실무책임자, 시민대표 참여하는 홍보자문위원회 운영)
 - ② 이전에 환경프로젝트 통해 지원되었던 병원/ 공연시설 등 기존 복지시설을 본 정책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포함시켜내고 대규모 지원해낼 수 있는 시스템 구성
 - ③ 업종별 기업분과/협회를 설립하고, 몬트리올시에 대한 직접적 지원방안 개발 -2006년, 지자체 예산중 2,100만 달러를 사회적기업을 위한 대출 및 보조금으로 조성
 - ④ 사회적기업을 통한 제품및 서비스 구매: 몬트리올시 구매비용 연간 12억달러 중 사회적기업을 통한 조달 230만 달러만을 차지 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주요 분야가 엔지니어링과 건축인데 이 분야 사회적기업 적어 사회적기업을 통한 조달이 어렵다. 또한, 지자체법상 조달에서 사전 구매 할당이 불가하여(장애인 조달도 사전 구매 할당 없음),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강제화 정책 수립 이 어렵다

면담자	Olga Navarro, Professors (UQAM)
소속	사회적책임과 지속가능 개발연구소 (CRSDD) Social Responsibil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Research Center, UQAM
소속기관 소개	사회적책임과 지속가능 개발연구소(CRSDD)는 윤리의식와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에 대한 이슈들을 반영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독특한 공간이다. CRSDD의 주요 관심 분야는 세계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규정과 사회적 활동가에 의한 혁신적이고 새로운 경제사회적 대안 마련이다. 2000년에 퀘벡대학교 (UQAM) 경영과학대학에 처음 모임이 생성되어, 2002년부터 공식적으로 CRSDD의 연구활동을 시작하였다. CRSDD는 교수 및 학생들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시민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 본 조직을 통해 회원들은 자신의 경험을 한다. 또한 기업이 사회에서 행해야 하는 역할과, 이러한 역할이 오늘날 기업을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는 지 논의한다. http://www.crsdd.uqam.ca/Pages/presentation.aspx

○ 토론내용

-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와의 연계성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왜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 반응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기업이 반응하는 가를 살펴야 한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제기된 배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인도의 보팔시 가스폭발⁷⁾, 엑슨모빌사의 발데스호의 알래스카 해안의 기름유출 사건⁸⁾과 같은 기업의 대형 스캔들에 의해 촉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목표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 곧,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기업이 사회에 미친 환경적, 윤리적 영향(impact)에 대한 실천에 관련된 것이다. 그러한 기업의 실천은 경제적, 지역적 상황(context)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단지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로만 축소되어 해석되기보다는 보다 사회적 관계의 제도적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사회적 역동성(social dynamic)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지역적(local) 상황과 국제적인 맥락 속에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나 사회적 공익(public interest)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소비자나 사회적 욕구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다. 그러한 반응은 적법(legitimacy)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적법성은 공익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⁹⁾로 나타난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사회적, 환경적 외부효과의 관점에서 평가됨을 의미한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과정 뿐 아니라 내용과 성과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적용은 기업과 NGO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기업이나 경제단체들은 스스로 자율적인 규정(self regulating)에 따른 준수를 강조하지만 NGO들은 기업 외부의 법에 의한 준수(legal framework)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CSR과 사회적경제는 시장, 노동, 지역사회, 환경 등 같은 영역(field)에 놓여있으면

7) 20여 년 전인 1984년 12월 3일 인도 보팔시에서는 대구의 사고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대형참사가 터졌다. 미국계 유니언카바이드사 공장에서 360t의 메틸 이소시안염(MIC)이 유출된 것. 이 사고로 당일에만 3천여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약의 제조 원료였기에 보팔시 곳곳에 퍼진 MIC가 불러온 재앙은 엄청났다. 총 사망자 3만여 명, 부상자 60만 명. 후유증을 앓는 이만 15만 명이 넘었다. 사고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요즘도 매달 평균 30여 명이라고 한다. 장애아도 여전히 태어나고 있다. 많은 대형사고가 그러하듯 보팔시 사고의 원인도 안전 불감증.

8) 엑슨모빌사 발데스호의 알래스카 해안 기름유출 사건, 1989년 엑슨모빌사의 유조선 발데스는 알래스카의 연안 프린스 윌리엄 사운드에서 좌초되면서 6000만 리터의 기름을 흘려 1600km에 이르는 해안이 훼손되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해양 오염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사고해역의 수만종의 새와 해양생물이 집단 폐사하고 조업이 금지됐다. 미국 대법원은 석유회사 엑슨 모빌의 상고를 기각하고 알래스카 해역에서 기름을 유출시킨 데 대해 인근 어민 등에게 50억달러(약 5조5000억원)를 배상하도록 명령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9) 지속가능한 개발은 기업의 경제적 발전을 환경과 사회적 발전과 동시에 이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다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는데 있어서 동일한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 문제는 어떻게 기업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있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분야(시장, 노동, 지역사회, 환경)는 정책, 지배구조, 사회대화(커뮤니케이션), 미션이라는 수단과 함께 법, 벤치마킹, 윤리헌장, 인증, 3가지 기저 (three bottom line : 환경, 경제, 사회)¹⁰⁾, 등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보다 분야, 수단, 방법론, 이해관계자 측면에서 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다. 하지만 사회적경제는 기업의 사회적책임보다 지배구조, 사회적미션,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연대라는 측면에서 보다 더 많은 내용을 지니고 있다.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관점에서 봐야하며 그것을 이룩하는데 있어서 경제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며 공익성을 추구하는 사회적인 목적 달성이 중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4) Technopôle Angus & Projets Part

(테크노폴 앵거스 & 프로젝트 파트)

(1) 기관개요

① 설립배경



<Technopôle Angus>

- 오래전 이 지역은 대규모 철도산업단지(Technopole)가 있던 곳이다. 경제상황의 변화로 1982년 철도관련 사업들은 모두 폐업하였고, 지역 전체는 실업과 빈곤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 상황이 악화되자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은 주민들과 함께 1989년 경 테크노폴 사회개발위원회를 조직하였다.
- 수많은 논의와 실험 끝에 지역사회 재건을 위한 다양한 모델을 만들게 되

10)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국제적 표준화의 가장 큰 카테고리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기저가 GRI, ISO26000 등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었고, 그 결과 대략 12년 전 현재의 모델인 Technopole Angus가 탄생하였다.

- 1999년 지역재건사업은 큰 전환점의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실직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일에 노동조합연맹이 당연히 함께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캐나다 전국노동조합연맹이 이 사업에 대규모 투자지원을 해준 것이다. 캐나다에는 3개의 전국단위 노동조합 연맹이 있는데 그중 한 곳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공제기금에서 Angus의 지역재건사업에 투자를 해주었다.

② 미션

Angus는 간단히 말해 부동산 개발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실천가능한 행동을 취함으로써, 몬트리올의 환경과 접근성 측면에서 삶의 질을 제고하는 비즈니스 단지를 조성한다.

(2) 운영현황

① 주요사업

- 1999년 자본투자를 확보한 뒤, 폐업한 대규모 공장건물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 이렇게 재건된 기업단지에는 모두 46개 기업이 입주해있다. 그 가운데 9개 기업은 사회적 기업인데 대부분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 기업들도 다양한 첨단분야 산업들이 입주해있고 신규고용 시 동일 조건이라면 지역주민을 고용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 지금까지 대략 1500명의 지역주민들이 고용되어 안정된 삶을 유지하고 있으며, 빈곤하고 낙후한 지역이라 버스마저 끊겼었는데 다시 버스 노선이 생겨나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② 재정

현재 전체 재원의 50%가 노동조합연맹의 투자기금이고, 나머지 50%는 신축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해서 얻은 수익으로 충당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에서 지역부동산 개발은 아주 중요한 분야라고 이야기한다. 빈곤하고 낙후하며 실직자가 넘쳐나는 지역의 경우 단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경우, 지역을 새롭게 재건하고 개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단지 시장의 논리와 기능에 지역개발을 맡기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심각해지므로 개발과 환경, 지역의 경제문제 해결이라는 과제를 종합하여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바로 그러한 지점에서 모두를 아우르는 사회적 경제라는 시각으로 지역사회 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Projets PART

(1) 기관개요

1987년 빈곤지역에 나타나는 주요 문제 중 하나인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개발 사업의 차원에서 설립되었다. 현재까지 800명이 본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으며, 주로 정신심리적 문제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길거리를 떠도는 청소년들에게 요리를 가르치거나 고등학교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이들이 안정된 직업을 가진 건강한 노동자 및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운영현황

① 주요사업

○ 특징

단순히 요리교육을 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며, 자존감을 회복시켜 준다. 냉동식품도 생산하여 주변 공단의 노동자나 지역주민들에게 공급하기도 한다.

○ 고용효과

- 한 번에 50명씩 교육을 진행하는데 50%인 25명 정도가 교육과정을 마치고 6개월 정도 부요리사로 실습을 거친 후 그들 중 약 70% 정도가 요리사로 직접 활동한다. 교육을 마치는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교육과정에서 삶에 자신감을 회복하고 상당수의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한사람 한사람의 자존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퀘백 사회적 경제의 특징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다.
- 현재 54명이 고용되어 함께 일하고 있는데 그중 50%가 교육생 출신이다. 몬트리올에는 이러한 레스토랑이 5곳이 설립되어 있고 교육받은 학생들은 여기서 일하거나 아니면 공공기관 또는 호텔, 시내의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다.

② 재정

재정확보는 3가지 경로로 이루어진다.

- 1) 정부의 보건부가 일부 지원, 2) 고용부의 직업교육기금 일부, 3) 60%의

재정은 자체적인 수익사업

지난 5년간의 연구결과를 보면 지역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선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Projet Part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 대비 엄청난 사회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5) Batir son quartier

(바띠르 손 까르띠르: 주거 협동조합)

(1) 기관개요

Batir son quartier는 주거복지를 미션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이자 사회적기업으로서 30년의 활동경험을 지닌 조직이다. 25명의 도시개발전문가가 현재 이 기관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은 몬트리올에 살고 있는 집 없는 시민들과 빈민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일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8,000가구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현재는 1,000가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2) 운영현황

(ㄱ) 주요사업

○ 공동주택 건설을 통한 협동조합방식의 주거관리체계 마련

얼핏 보면 빈곤한 사람들을 위해 서민형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건축 사회적기업의 하나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이 건설하는 것은 그냥 공동주택이나 임대아파트가 아니라 협동조합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이들이 300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Batir가 임대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집 없는 서민들이 입주 대상이 되어 이러한 계획에 함께 참여하고 도록 한다. 건립 후 이들이 거기에 입주하면 그 아파트 자체가 협동조합이 되는 것이다. 전체 입주민이 조합원이 되고 그 가운데 임원도 선출하며 부문별 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하여 협동조합 방식의 민주적인 주거관리체계가 만들어진다. 일단 협동조합이 출범하고 나면 사업을 추진한 Batir는 모든 임대주택에 대한 소유권한을 해당 협동조합으로 이관한다. 물론 Batir가 건립한 공동주택 모두가 협동조합이 되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해당지역의 비영리 조직에 관리권한이 이양되는 경우도 있다. 마약중독자나 사회부적응자들이 입주하는 공동주택처럼 입주자들에 의한 협동적 소유와 민주적 관리가 어려운 경우는 비영리 조직들이 관리를 대행하게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형성에 부담을 가지고 있어 협동조합형 주택에 입주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도 비영리 조직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개개인

의 상황과 심리적 성향까지도 배려하는 세심함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 입주인들의 실질적 욕구에 부응하는 주택 건설

Batir 의 프로젝트는 입주할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직접 가정 방문을 하여 인터뷰를 하고 주민들이 어떤 주거환경을 원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거주민이 원하는 주택, 거주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주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소중한 철학과 가치다. 욕구조사가 끝나면 예산범위 내에서 세부사업계획을 세우고 건설팀을 연계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 그룹을 사회봉사 차원으로 참여시키는데 보통 하나의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마다 30명의 전문가 그룹이 함께 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을 구체적인 예산안으로 만들어 정부 보조금에 대한 기획서를 작성하고 예산집행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시공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립된 공동임대주택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있다. 비록 임대이지만 공동으로 소유하는 힘 말하자면 모두가 주인으로서 함께 민주적으로 관리해나가는 역량을 시민들이 배우게 되며, 집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향상된다.

○ 노인들을 위한 협동조합 공동임대주택을 통한 세대간 통합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캐나다 주거 협동조합 가운데 독특한 모델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 노인들을 위한 협동조합 공동임대주택인데 그 건물에 청년들도 입주한다는 것인데, 이 청년들은 주로 가까이서 부모를 돌보려는 청년들이다. 서로의 주거공간에 대한 독립성은 보장받으면서 위급할 때 언제든지 가까이에서 보살피려는 따뜻한 마음들이 서구 개인주의의 전통이 강한 캐나다에서 새로운 풍토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 자유와 상호부조 정신의 새로운 조화가 발현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 사회통합적인 주택 개발

협동조합 공동임대주택의 규모가 200가구 이상이면, 일부는 반드시 서민을 위한 주택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약 15%를 이러한 방식으로 개발하는데, 노인용 주택을 지을 경우 법적으로 공동부역등 공공 시설을 짓도록 한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친환경 건물 기금을 조성중에 있으며, 오래된 공장 및 임대주택을 등의 오염을 재처리 하는 리노베이션 사업도 펼치고 있다.

○ 향후 전망

현재 몬트리올에는 주거 협동조합 지역연맹이 20개나 조직되어 있다. 주거 협동조합들이 빠르게 확산되어 가는 것이다. 이러한 연맹체를 근거로 하여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강력한 정책요구도 조직되고 있다. 협동조합 공동임대주택의 규모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물론 규모에 대해선 여러 가지 우려도 있다고 한다. 500세대를 넘어서는 협동조합은 민주주의와 참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200~300세대 정도가 주거 협동조합으로서 참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한계가 있지만 한편으로 대규모 주거협동조합에는 1층 공간에 주간보호

센터나 보육시설 등의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해서 입주하는 저소득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나 서비스개선의 효과도 있을 것이다.

(ㄴ) 예산

5%는 정부지원, 나머지는 수익을 통해 충당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에 수요에 부응하여, 수요가 없을 경우 주택공급을 낮춘다.

캐나다 역시 30년 전에는 지금의 한국과 비슷한 방식으로 국가가 직접 정부기관인 주택관리공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정부가 서민의 주거문제를 공적으로 해결하게 되면 임차 및 임대에 대한 엄격한 법적 기준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임대인들의 권익이 신장되는 효과가 있음에는 틀림없다고 이들도 말한다. 하지만 정부는 주택을 건설하는데 있어 거주자들의 욕구나 필요를 일일이 세심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캐나다에서는 정부가 모든 것을 일괄 관리하는 저소득층 임대주택 보급사업에 대해 많은 비판적 성찰이 진행되었고, 마침내 오늘날과 같은 방식으로 즉 재원은 정부가 책임지며 관리는 지역공동체가 담당하는 대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수년전까지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주정부나 지자체가 책임지는 것이 적절하리라 생각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지역공동체나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조직들이 지역주민들의 삶에 더욱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일본에서도 볼 수 있는데, 오사카 외곽 센보쿠 지역의 피차별 부락해방운동이 그것이다. 일본사회 곳곳에는 불과 수 십년 전까지 철저히 차별받아온 천민마을들이 있었다. 이 분들의 부락해방운동의 역사와 현장을 보면서 엄청난 전율을 느낄 수 있다. 차별로 인해 빈곤과 실업에 시달리던 이들은 정부로부터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자신들의 자존감을 당당하게 앞세우며 싸워나갔다. 일본정부가 빈곤층의 공동주택 건립을 지원해줄 때도 이들은 무상지원을 거부하고 오사카현을 찾아가 자신들이 보유한 피차별 부락의 모든 땅을 오사카현의 땅으로 귀속시키면서 그 댓가로 공동주택 건립을 쟁취해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당시 건립된 아파트가 층층마다 집집마다 모두 구조가 다르다는 것이다. 가족 수가 다르고 연령이 다르며 삶의 욕구가 다른데 어떻게 공동주택이라 하여 모든 집의 구조가 같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비록 서민용 임대주택이라고 하여도 거주자의 자부심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캐나다의 주거 협동조합운동 그리고 일본 센보쿠의 부락해방운동 그 둘 사이에는 ‘인간중심’이라는 공통의 정신이 흐르고 있다.

CDI세미나 2011-11

제2차 사회적경제연구회 워크숍
사회적경제의 해외사례

- 발행자 : 박 진 도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 주 소 : 314-140 충남 공주시 금흥동 101
 - 전 화 : 041-840-1211
 - 홈페이지 : www.cdi.re.kr
 - 인쇄일 : 2011. 4. 01
 - 인 쇄 : 예로니모
-

본 자료집의 내용은 충남발전연구원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